Entertainment p/20

손석희 '뉴스룸' 미드 저랑?

metro
메트로 2014년 9월 17일 수요일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부상 류현진 정규시즌 끝!

<아시안게임 D-3> 서울 성화 봉송 시작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을 사흘 앞둔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 성화 봉송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가운데)과 이건용 영화감독(오른쪽)이 다음 주자인 홍콩의 씨에게 성화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16만 요우커를 잡아라"… 유치전 불붙어

국경절 연휴에 인천AG 겹쳐… '한류' 상품 판매 총력전
호텔 숙박권·즉석 복권·아파트 경품 등 판촉 공세

국내 유통 업계가 국경절 연휴에 한국을 찾은 요우커(중국인 관광객)를 겨냥한 다양한 행사를 편다.

16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0월 1~7일 연휴 기간 한국을 찾을 중국인 관광객은 1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는 이 기간에 인천아시안게임 관광객까지 몰리면서 사상 최대의 중국 관광객 특수를 거둘 것으로 관련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백화점은 물론 대형마트까지 잠실에 본점과 주요 매장, 인천지역 점포 등에서 중국 관광객 모시기 채비를 끝냈다.

먼저 백화점 업계는 '한류' 콘서트와 이벤트와 상품 판매에 집중한다.

신세계백화점은 10월 7일까지 본점과 강남점에서 구매한 중국인 고객 중 2명을 추첨해 3박4일 동안 한류 스타의 일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여행패키지를 제공한다. 또 오는 10월 4일까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여성의류·화장품 등 130여개 브랜드를 10~30% 할인하는 행사를 벌인다. 이 백화점 인천점에서 28일과 30일 관디 인형 옷을 입은 연기자 30명이 중국인 고객을 겨냥한 '열정 퍼레이드'를 펼친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국내 최초로 중국인 고객만을 위한 737㎡(223평) 규모의 행사장을 마련했다. 이 곳에서 9월 17~21일 '한류 인기브랜드 상품전'을 열고 32개 선호 브랜드의 인기상품을 판매한다. 인천점은 19~30일 외국인 방문객에게 구매 금액별로 한국 전통 부채와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2일부터 은련카드로 결제하는 중국인 고객에게 5% 할인 혜택을 준다. 중국인 VIP 고객에게는 브랜드 소개 자료와 쿠폰 등을 별도로 발송했다.

면세점도 고가의 경품으로 중국인을 끌어 모을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은 경품으로 아파트를 내걸었다. 모든 면세점을 방문한 중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즉석 복권과 경품 응모권을 증정하고 1등 당첨자 1명에게는 중국 선양 롯데캐슬 아파트(56㎡)를 제공한다.

신라면세점은 서울·제주신라호텔 숙박권과 갤럭시노트4 등 경품이 걸려있는 '100%경품 이벤트'를 연다.

대형마트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벌인다.

롯데마트는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역점과 잠실역점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켓오 리얼브라우니', '양반 들김' 등 외국인 인기상품 13종을 최대 30% 할인해주는 '할인쿠폰북'을 증정한다.

이마트도 중국인 매출이 높은 제주점·왕십리점 등 10개 점포에서 국경절 연휴 마케팅을 벌인다.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동인천·인천공항·검단·계양 등 인천과 인천 인근 8개 점포에서 대대적인 중국 마케팅을 펼친다.

홈플러스 50개 점포에서는 10월 1일까지 '외국인 관광객 인기 식품 모음전'을 열고 스낵·김·라면·장류 등을 최대 30% 할인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여행객의 지출 경비 중 61%를 차지할 정도로 쇼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유통업계의 마케팅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만 올해 상반기 은련카드 기준으로 중국인들의 구매 매출은 전체 매출의 16.5%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9.8% 신장한 것이다.

한편 전종규 삼성증권 투자전략팀 책임연구위원은 "오는 2018년까지 중국 요우커 1000만명이 한국을 방문해 4배 이상 소비를 늘리면서 3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쓸 전망"이라며 "현 7조원 수준의 한국 내 소비를 이처럼 늘리면 우리나라 시장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명혜실 권수정기자

윤 일병 가해자들 살인죄 부인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이 재판에서 살인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된 윤 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이모(26) 병장 등 가해 장병 4명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를 일제히 부인했다. 주범격인 이 병장 측은 성추행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 검찰은 "윤 일병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수십일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숨졌다"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폭행해 쇼크사로 숨진 만큼 살인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은 살인죄 입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건 사진과 윤일병 의료기록을 보내 사인 감정이 필요하다며 촉탁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의 증인신청과 사인감정 촉탁은 수용하는 한편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 진술권도 부여했다. 다음 공판은 26일 오후 1시에 열린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윤 일병을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다혜기자

안상수 창원시장 시의원에게 계란 투척 당해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이 16일 개회한 시의회 본회의 개회식에서 NC다이노스 야구장 입지변경에 반대하는 진해구 출신 김성일 시의원이 던진 계란을 맞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례가 끝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안 시장에게 "김계로 (마산·창원·진해) 통합시켜놓고 야구장을 뺏느냐"고 외치며 손에 쥐고 있던 계란을 2차례 던졌다. /연합뉴스

"진상조사위 수사·기소권은 삼권분립의 근간 흔드는 일"

"대통령 결단 사안 아니다" 밝혀

박근혜(사진)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 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진상조사위로 수사·기소권을 넘겨달라는 유가족 등의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 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주재 후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전격 회동,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것도 민생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며 여당이 조속히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주도하고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민생법안의 통과에도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조현정기자 h@metroseoul.co.kr

신뢰 없는 명분 내세우는 정부

기자 수첩

황재용 <생활유통부 기자>

담뱃값 인상안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커졌지만 정부가 말하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은 확실하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결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먼저 세금을 걷기 위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전망하는 세수 확충액은 2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에 귀속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뿐이며 금연 정책에 사용되는 비율은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추가되는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서비스에 높은 세율을 매겨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이 중앙정부로 들어간다. 또 징수한 세금의 사용 계획도 불분명해 결국 담뱃값 인상이 단순히 국가의 배를 채우는 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도 허술했다. 지난 11일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다음 날인 12일 대책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제·개정할 때 그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제도로 규정에 따라 40일 정도의 기간을 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은 주말을 제외하면 고작 이틀 정도에 불과했다.

대책을 마련할 때도 사전 논의 절차가 없었고 증세 결정의 배경과 정책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도 생략됐다. 시급한 정책이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해명이 있었지만 의견수렴에 귀를 막고 있는 모습이다.

10년 만에 큰 폭으로 이뤄진 담뱃값 인상안. 신속한 처리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과 대책 수립, 그리고 이를 통한 명분이 우선이 아닐까.

뉴스&뉴스

조경태 의원 "당 해체, 빠를수록 좋다"

●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 실패와 비대위원장 영입 무산 등으로 당이 시련속에 처한 것과 관련, "당을 해체시켜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6일 "당이 정당으로서 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해체 또는 분해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헤쳐모여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화록 유출' 정문헌 "비밀 누설 아냐"

●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측이 무죄를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당시 정 의원이 대화록 관련 발언을 국정감사장에서도 했었다"며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 비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기념재단' 지난달 등기 끝내

● 이명박 전 대통령 기념재단이 지난달 중순 안전행정부로부터 설립 인허가를 받고 정식 재단법인 등기를 마쳤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16일 "일단 이사진인 임부 구성해 기념재단 설립을 위한 인허가와 등록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이재후 김앤장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텅 빈 야당 좌석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에서 국회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0월 1~20일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골자로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박영선 칩거… 거취 결단 임박

새정치 내홍 - 박 '한시적 직위 유지' 방안 제시

비상대책위원장인 박영선 원내대표의 강경파 간 노선 갈등이 초래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극심한 내홍 사태가 최대 고비를 맞았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비대위원장 영입 계획이 강경파의 반발로 무산되자 '탈당'으로 배수의 진을 친 박 위원장은 16일 3일째 칩거를 이어가며 거취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박 위원장의 거취가 개인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야권의 미래와 결부돼 있다는 점에서 탈당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반면 박 위원장 측근에서는 "탈당 결심을 굳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박 위원장의 한 핵심 측근은 "한 인간의 정치적 인권이 단한번도 계속해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느니 이런 상황을 탈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선명성을 내세우는 친노그룹과 강경파와 사사건건 대립해온 중도온건파가 박 위원장을 따라 동반 탈당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중도파의 조경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해체 또는 분해 수준으로 간 뒤 다시 헤쳐모여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당내 각 계파의 수장과 중진그룹은 박 위원장의 탈당이 이 당 전체를 공멸에 빠트리는 엄청난 충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탈당을 만류하고 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당 대표의 탈당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내분 수습책의 하나로 박 위원장의 직위를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이 수습안을 받아들일 경우, 이는 한시적이지만 탈당 등 거취 문제에 관한 결정을 유보한 채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이어서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조현정기자

도시재생 옷입는 가리봉

중국동포와 화합 초점… 디지털단지 배후주거지 등 지원

서울시는 10년간 개발이 중단된 서울 가리봉지구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가리봉지구는 2003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과도한 땅값 상승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졌다.

결국 시는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시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지등소유자 32.49%가 사업 추진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지난 2월 개발사업을 포기하면서 그동안의 사용비용 110억원을 자부담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40일 이상의 주민공람과 심의를 거쳐 11월 지구 해제를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가리봉동의 인구 중 30%가 중국동포인 점을 고려, 주민협의체 등을 통해 이들과 내국인 간 화합을 도모하고 치안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 시는 가리봉동이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사이에 있는 특성을 살려 디지털단지의 배후주거지로서의 기능과 IT 관련 청년 창업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남은 주택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하고 골목길 보안등과 폐쇄회로(CCTV) 등 치안시설도 확충할 방침이다.

서울 35개 뉴타운 사업구역 중 지구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창신·숭인지구에 이어 가리봉지구가 두 번째가 된다.

/윤다혜기자 yd@metroseoul.co.kr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2차 안전점검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83층에서 점검단이 초고층 타워동 공사장에 대한 2차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류탄 던지려는 순간 '펑'

해병대 투척훈련 중 폭발사고 1명 사망

경북 포항의 해병대에서 수류탄 폭발 사건이 발생해 장병 1명이 사망했다.

16일 오전 10시2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대 교육훈련단 내 수류탄 투척 훈련장에서 박모(19) 훈련병이 들고있던 수류탄이 갑자기 터졌다.

교관이 "던져"라고 하는 순간에 수류탄이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박 훈련병은 손목이 절단되고, 상태가 악화되면서 결국 사망했다.

인근에 있던 교관 황모(26) 중사와 다른 박모(19) 훈련병이 수류탄 파편에 맞아 포항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해병대 측은 훈련 과정이 절차대로 실시 중이었다고 밝혔다.

군은 수류탄 조작 실수인지, 불량품인지 파악 중이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나는야 꼬마 농부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도시농업체험장에서 어린이들이 배추 모종 심기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전탑 돈봉투' 전방위 수사

한전 대구경북지사 수색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경북 청도군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에게 추석연휴 기간 돈을 뿌린 한국전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전 사무실, 이 전 지사장의 자택과 승용차, 송전탑 건설 현장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한전의 법인 계좌 출납 내역과 자금 집행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한전은 추석 전인 2일과 연휴 기간인 9일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을 통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온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 7명에게 100만~500만원씩 총 1700만원을 살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전 지사장 등 한전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주민들에게 돌린 돈은 회삿돈이 아니라 개인 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봉급 생활자가 회사일을 위해 거액을 쓴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보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 돈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은 한전 본사가 대구경북지사의 추석 돈 봉투 살포 등 주민 로비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 개입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윤다혜기자

서울지하철 부정승차 6년간 18만건

손실 요금 60억원 육박

지난 5년 8개월 동안 지하철 1~8호선 서울시내 구간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가 18만여 건에 달하고 부정승차 금액은 6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내 지하철 1~8호선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는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8만 3683건에 달했다. 이 기간 적발된 부정승차 금액은 59억 3051만원이었다.

이는 서울 지하철 당국이 적발한 실적이며 실제 부정승차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2009~2011년에 연간 1만6000~2만3000 건 수준이었으나 2012년 4만327건, 2013년 6만461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에는 1~8월 2만3872건이 적발됐다. /윤다혜기자

'총기 난사' 임 병장 내일 첫 공판

22사단 GOP(일반 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등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장성급 장교 1명과 군법무관 2명으로 구성되며 군 당국은 지난달 임병장의 재판 관할 법원을 육군 8군단에서 1군 사령부로 이관했다.

임 병장 측 변호인은 1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군사법원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임 병장은 6월 21일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부상케 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윤다혜기자

서울대 신입생 10명 중 8명 사교육

올해 서울대학교 신입생 중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16일 공개한 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3369명(응답률 26.8%) 중 88.7%가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85.9%가 사교육 경험이 있다고 밝힌 것 보다 2.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사교육을 받은 신입생은 ▲2009년 69.5% ▲2010년 67.9% ▲2011년 58.0% 등 50~70% 선을 유지하다가 인터넷 강의가 사교육에 추가된 2012년 87.4% 이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 '도움이 됐다'는 학생은 46.0%로, '도움이 안 됐다'는 12.8%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81.8%가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꼽았다.

/윤다혜기자

美 이라크 IS 공습 강화

바그다드 인근으로 확대…무장 단체는 정부 행세

미국이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강화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서 처음으로 공습을 가한 것이다.

15일(현지시간) AFP 통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국이 바그다드 부근에서 한 차례 공습을 가했고 이라크 북부 신자르산에서도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바그다드 남서부 공습은 지난달 IS 공습을 시작한 이후 처음 이뤄졌다"며 "이라크군의 진격에 발맞춰 시행됐다"고 성명을 통해 설명했다. 바그다드 공습으로 이라크 전역에서 미군의 누적 공습 횟수는 162회가 됐다.

이러 가운데 시리아 동부에서는 시리아 정부군의 작전으로 보이는 폭탄 공격으로 데이르 이조르시의 마지막 다리가 무너졌다. AFP 통신에 따르면 데이르 이조르시에 고립된 IS 대원들은 이번 공격으로 중요한 보급로를 잃었다. 현재 이 지역의 절반은 IS가, 나머지 절반은 시리아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IS가 이라크 북부 점령지인 모술에서 새 교과과정을 시행하는 등 정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S는 모술에서 지난 9월 시작된 새 학기에 맞춰 음악과 미술 과목을 없애고 역사, 문학, 기독교 수업도 폐지했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IS는 교과서에 실린 일부 그림을 찢어서 없애기도 했다. 자신들의 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애국가나 나라 사랑을 읊은 시는 "다신론과 신성모독적 표현"이라며 금지했다.

상당수 모술 지역 주민은 IS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조용히 반기를 드는 주민도 적지 않다.

한 주민은 "학력 인증보다 아이들이 올바른 지식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재를 구해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María Esther Cortés deja la corona "por motivos personales"

미스 니카라과 왕관 반납 왜?

네티즌 "누드 사진 유출 때문 아니냐"

metro Nicaragua

2014년 미스 월드 니카라과로 선정된 여성이 갑자기 자격을 포기해 그 배경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미스 월드 니카라과 조직 운영위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11월 뽑힌 마리아 코르테스가 왕관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코르테스의 사퇴 이유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운영위는 설명했다. 그의 사퇴로 오는 12월 런던에서 열리는 미스 월드 대회에는 2위를 차지했던 유마라 로페스가 참석하게 된다.

갑작스러운 사퇴 소식에 인터넷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떠돌았다. 많은 네티즌은 그의 누드 사진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최근 상의를 벗은 채 찍은 그의 사진이 해킹으로 인터넷에 유출된 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급히 왕관을 내려놓은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그는 사생활 사진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가엾은 희생자"라며 사퇴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운영위 관계자인 데니스 다빌라는 "사진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면서 "개인적인 이유라 밝히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코르테스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팬들에게 작별인사를 건넸다. 그는 "갑자기 결정을 내려 미안하다"면서 "유마라 후보에게 행운을 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렌 에스피노사 기자·정리=조선미기자

허리케인 통타 약탈 허리케인 '오딜'이 강타한 멕시코 코스카보스의 슈퍼마켓에서 15일(현지시간) 주민들이 물건을 마구잡이로 가져가고 있다. /AFP 연합뉴스

"스코틀랜드 독립은 이혼"

영국 총리 반대표 호소…막판 공방전

스코틀랜드 독립 주민투표(18일)가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막판 지지표 결집을 위한 찬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원 유세를 위해 16일 스코틀랜드 석유 산업의 중심지 애버딘을 찾았다.

캐머런 총리는 "독립은 한번 해보는 별거가 아니라 고통스런 이혼이다.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며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영국의 여야 정치인은 분리독립이 스코틀랜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강조했다.

자유민주당 소속 대니 알리산더 재무담당 부장관은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면 지금이랑 사태로 스코틀랜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의 존 리드 전 내무장관은 "독립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일자리를 건 도박"이라며 "반대표만이 스코틀랜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분리 독립 지지 세력은 영국 정부의 경제 불안론이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찬성표 모으기에 나섰다.

알렉스 새먼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중앙정부의 총리와 재무장관이 위기감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많은 기업인은 스코틀랜드가 독립으로 경제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런던에서는 스코틀랜드 독립 반대 집회가 열렸다. 수 천 명의 시민은 트라팔가 광장에 모여 '스코틀랜드를 사랑합니다. 떠나지 마세요'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독립 투표 부결을 촉구했다.

/조선미기자

에볼라 사태 악화일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8일(현지시간) 긴급 회의를 연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긴급회의에서 반기문 사무총장과 마거릿 챈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에볼라 확산 현황을 함께 보고한다.

긴급 회의는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에볼라 사태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긴급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다함께 머리를 맞대 공격적으로 대응하자"고 말했다.

안보리가 공중보건 사안으로 회의를 여는 것은 흔치 않다. 2000년 에이즈 확산 방지 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선미기자

"바이엘 가족 100년을 향해 뛰고 있어요"

온 가족 한 직장 근속연수 92년…정년까지 일해 100년 채우기

사람이야기

■바이엘코리아 동물의약사업부 이용상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다. 그만큼 최근에는 한 직장을 오래 다니는 사람이 드물다. 실제로 기업경영평가업체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500대 기업 중 350개사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0.32년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엘코리아 동물의약사업부에 근무하는 이용상씨(사진)는 29년째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더욱이 배우자와 자녀, 장인과 처제, 처남 등 온 가족이 한 직장에서 일한 바 있으며 이씨 가족의 바이엘코리아 근무 년수를 합치면 100년에서 8년이 빠진 92년이 된다.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23년, 아내가 8년을 근무했어요. 처남들도 이 회사에 다녔고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였지만 큰딸과 작은딸도 나닌 적이 있지요. 그리고 현재 제 남은 정년이 8년인데 그것을 모두 채워 저희 가족 총 근무 년수가 100년이 되는 뜻 깊은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1985년 군대에서 제대한 후 바이엘코리아에 입사한 이씨는 말 그대로 모든 청춘을 이곳에서 보냈다. 입사 첫해 열린 낚시대회로 가는 버스에서 커플이 된 여직원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했고 딸들과 함께 같은 곳을 출퇴근하는 즐거움도 맛봤다. 그만큼 이씨에게 바이엘코리아는 인생의 모든 것을 함께한 동반자다.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힘든 적도 많았어요.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요."

이씨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직원 개개인을 존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모든 직원들이 직함 대신 'OO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등 직원 간의 소통을 가능케하는 수평적인 기업문화가 오랜 근무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또 '더 나은 삶을 위한 과학'이라는 회사의 기업 이념이 매력적이라며 회사에 대한 칭찬도 빠뜨리지 않았다. 온 가족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회사에 다닐 수 있었으며 이런 부분 때문에 딸들에게도 바이엘코리아에서 일해보라고 권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요즘같이 직장에 대한 불만으로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회사의 제도적인 혜택 외에도 자신이 만드는 근무 환경이 무척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동호회 등을 통해 일상에서 작은 여유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이 업무에서도 활력으로 작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죠. 또 회사 소속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이씨는 회사의 지원뿐만 아니라 회사원의 입장인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런 작은 노력 덕분에 동료들과 허물 없이 어울릴 수 있었고 이런 관계가 이씨의 동료, 그리고 회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그는 바이엘코리아의 본사인 바이엘이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독일의 바이엘 04레버쿠젠 축구단이 탄생한 회사라는 자랑 섞인 얘기를 덧붙이며 자신의 현재 소망으로 말을 마쳤다.

"오랫동안 근무하며 가질 수 있었던 노하우나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을 앞으로의 바이엘코리아를 꾸려나가는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건강한 근무 환경과 기업문화가 큰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말이죠."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인기 '바나나맛 단지우유', 중국 수출

한국을 방문하는 요우커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바나나우유가 중국에 첫 수출됐다.

빙그레는 16일, 이달부터 자사의 오리지널 '바나나맛우유(일명 단지우유, 사진)'를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하이를 공략 거점 도시로 선정했다.

올해로 국내 출시 40주년을 맞은 바나나맛우유의 가장 큰 특징은 단지모양의 용기다.

하지만 이 제품은 짧은 유통기한이 10일에 불과하고 현지 냉장유통 문제로 멸균팩으로만 중국에 수출해 왔다. 이로 인해 중국 내 유사제품과 차별성을 부각하거나 원조 바나나맛우유의 독창성을 나타내기 어려웠다.

중국 내 유통망에서도 이 제품이 인기를 끌자 단지모양 완제품의 수출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빙그레는 지난 8월 중국 상하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오리지널 바나나맛우유 수출을 첫 프로젝트로 삼았다.

현지 생산이 어려운 가운데 빙그레 측은 무균화 생산공정인 ESL(Extended Shelf Life) 시스템을 도입을 통해 유통기한을 15일까지 늘려 세관업무를 제외하면 국내와 같은 유통기한을 10일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중국 내 철저한 냉장유통망을 구축했다.

회사 측은 이번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단지모양 수출은 중국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출농식품 개별브랜드 지원사업'에 힘입은 결과라고 공을 넘겼다. aT의 지원으로 상하이에 바나나맛우유 옥외광고를 실시하고 웨이보 페이지도 운영하는 등 현지 마케팅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리지널 바나나맛우유(240㎖)는 현지에서 18 위안에 판매키로 했다. 국내에서 편의점가 기준으로 1300원인 제품이 3000원 가량으로 오른 것이다. 빙그레에선 관세 등이 포함됐지만 정상적으로 판매되면 국내보다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다고 귀띔했다.

빙그레 중국사업부 이경무 차장은 "단지모양 바나나맛우유는 우선 상하이지역의 교민시장을 시작으로 편의점·할인점·백화점 등 유통채널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며 "현지 법인이 설립된 만큼 현지 마케팅 강화를 통해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림기자

로슈, '다우존스 지수' 6년 연속 1위

한국로슈(대표 마이크 크라익턴)는 로슈그룹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제약·생명공학·생활과학 산업 부문에서 6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는 기업의 경제·사회·환경적 성과를 분석해 기업 경영 구조와 유통망 기준 등을 평가한 지표다.

로슈그룹은 다수의 세부 항목 평가에서 부문 최고 점수를 획득했으며 현재 새로운 지속가능성 목표를 수립 중에 있다.

세베린 슈완 로슈그룹 CEO는 "지속가능성과 장기적인 관점의 사고는 로슈그룹 경영의 길잡이"라며 "로슈그룹은 앞으로도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일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롯데·노동부, '양질 일자리 창출 MOU'

롯데그룹과 고용노동부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일·학습 병행제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롯데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형 일학습 병행제와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호텔·유통·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공정한 원·하청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협력업체와의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펼칠 계획이다.

/정경일기자 jeffrei@

협약서 1층에 … 롯데그룹 이인원 부회장(사진 오른쪽)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롯데그룹 제공

아모레퍼시픽, 여성 인력 우수기업 포상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5일 '여성 R&D 인력 확충 우수기업 포상' 시상식에서 그동안 이어온 유능한 여성R&D 인력 확충·육성 노력과 여러 가족친화경영 정책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유능한 여성R&D 인력을 확충하고 육성하기 위해 채용 및 평가, 급여 수준, 복지 혜택 등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왔다.

또한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인 '아모레퍼시픽 어린이집'과 탄력적으로 출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ABC 유연출퇴근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지원기자 pjw@

올해 새 일자리 작년보다 적다

대기업 70% "지난해 수준"…문과보다 이공계 선호 뚜렷

국내 대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올해 신규 채용을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할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일자리 수가 1년 전만큼 늘어나지 않는 셈이다.

또 대기업의 57%는 문과보다 이공계 출신을 더 많이 선발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2014년 신규채용 계획" 조사 결과(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중 206개 기업 응답)를 공개했다.

올해 신규채용(경력포함)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52.9%, '감소한다' 32.0%, '증가한다' 15.1%였다.

신규채용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해당 업종 경기 악화' 36.4%, '회사 내부 상황 악화' 22.7%, '국내외 경기 상황 악화' 10.6% 등을 이유로 꼽았다.

대졸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58.3%, '감소한다' 28.6%, '증가한다' 13.1%였다.

대졸 신입의 전공을 조사했더니 '이공계 출신이 많다'고 응답한 기업이 56.8%였고, '문과 출신이 많다'고 응답한 기업은 14.6%에 그쳤다.

특히 기업규모가 크거나 제조업인 경우 이공계 출신이 많았으며 상위 100위내 기업의 62%가 이공계를 더 많이 뽑는 것으로 집계됐다.

철강금속업에 속한 기업은 모두 '이공계 출신이 많다'고 응답했고 건설(91.9%), 화학·에너지(71.9%), 제조(62.2%) 등도 이공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의 경우 58.1%가 '문과출신이 많다'고 응답했다.

비수도권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선발하는 인사원칙(쿼터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19.9%로 나타났다.

'없으나 일정 비율 뽑는 것을 고려중이다' 23.8%, '없다' 49.5%였다.

고졸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75.7%, '감소한다' 18.5%, '증가한다' 5.8%였다.

/이상훈기자 zan@metroseoul.co.kr

금융위기 일어난다면… 美·中 변수에 가계부채

한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그 위험 요인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가계부채 문제, 중국의 경기 둔화가 꼽혔다.

한국은행은 최근 77개 국내외 금융기관 전문가 90명을 상대로 '시스템적 리스크 서베이'를 한 결과 이들 3개 요인이 핵심 리스크(응답자의 50%이상이 인식하는 리스크)로 꼽혔다고 16일 밝혔다.

시스템적 리스크란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환율, 주가 등이 요동치면서 실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조사 결과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70%)는 1년 이내의 단기 리스크로 영향력은 크지만 실제 시스템적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은 중간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가계 부채(67%)는 1~3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중기 리스크로, 발생 확률도 높고 영향력도 큰 것으로 지목됐다. 중국의 경기 둔화(64%)는 중·단기 리스크로, 역시 발생 확률이 높고 영향력도 큰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2월 서베이 결과와 비교하면 신흥국 금융불안은 응답률이 50% 미만이어서 핵심 리스크에서 아예 빠졌고, 미국의 양적완화 등 3개 요인에 대한 응답률도 모두 낮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는 가계부채를 꼽은 응답률이 중국 경기둔화보다 더 높게 나온 것도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리기자 [illegible]

"아이언 맨"을 닮은 로봇 "도쿠젠" 1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삼성전자 오픈소스 콘퍼런스에서 삼성소프트웨어멤버십 소속 대학생들이 휴대전화의 도킹스테이션 로봇인 '도쿠젠(Dokuzen)'을 선보이고 있다. 이 로봇은 삼성전자·리눅스 재단이 공동 개발한 개방형 운영체제 '타이젠(Tizen)'을 탑재 했다. /연합뉴스

삼성·LG전자 스마트 폴더폰 경쟁 점화

카카오톡 등 중장년층 겨냥 기능 다양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번엔 폴더 형태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게 됐다.

국내에 출시된 폴더 형태의 스마트폰은 삼성전자 제품이 유일했다. 그러나 LG전자가 처음으로 폴더 형태의 스마트폰 '와인스마트'를 출시하면서 맞대결은 피할 수 없게 됐다.

LG전자는 16일 'LG 와인스마트' 이벤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폴더 형태임을 알 수 있는 이 제품의 티저 이미지를 게시했다. 새 와인폰은 스마트폰과 같은 터치패널을 장착해 폴더형 스마트폰으로 진화했다. 폴더폰의 특장인 전화 버튼과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등 첨단 기능을 원터치로 사용할 수 있는 스페셜 버튼, 여기에 스마트폰의 핵심인 터치 패널을 나란 것이나, 기존 스마트폰과 차별화된 중·장년층 스마트폰으로 구매자들의 선택폭을 넓혔다.

이 제품은 지난 2007년 첫 출시된 와인폰 시리즈를 계승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섯 번째 와인폰이자 첫 와인 스마트폰이 된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와인폰은 2012년 4월에 나온 와인폰5(와인샤베트)였다. 와인 스마트가 공개되면 와인폰 시리즈는 7년째 국내 시장에 출시된 최장수 휴대전화 브랜드가 된다.

LG전자는 이 제품의 구체적인 하드웨어 사양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폴더처럼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은 중장년 소비자를 겨냥해 이번 와인스마트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장년층이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인 카카오톡 기능도 별도 버튼을 통해 지원한다.

LG전자 관계자는 "와이폰6는 물리버튼의 편의성과 스마트폰의 첨단기능을 아우르는 고사양 폴더폰"이라며 "9월 중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폴더형 스마트폰 '갤럭시 골든'을 시판해 주목받은 바 있다. /양성운기자 ysw@

market index <16일>

코스피	2042.92	(+7.10)
코스닥	572.36	(+6.58)
금리	2.37	(-0.03)
환율	1036.20	(-2.60)

뉴스&뉴스

휘발유값 ℓ당 1800원대 전망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조만간 ℓ당 1800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주유소 가격 표시판에 휘발유 가격이 ℓ당 1759원을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 한갑 흡연 세금 121만원

담뱃값이 2000원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고가주택의 재산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 대로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641원에서 2.14배로 증가한 121만1070원에 이른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인상된 담뱃세가 시가 약 9억원 수준의 주택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라고 밝혔다. /유주영기자

회수 안된 5만원권 26% 증가

시중 유통 화폐가 처음으로 7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화폐 잔액(기념화폐 제외)은 70조476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3298억원(1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만원권이 1년 전보다 9조8933억원(26.1%)이나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보리기자 [illegibl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마포구 [illegible]
TEL 02)721-9800, FAX 02)730-1551

회장 인쇄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승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91

[illegible]

은행권, 인천 아시안게임 마케팅 활발

신한·우리·외환銀 관련상품 출시…입장권 구매 등 후원

국내 주요 은행들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관련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응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 아시안게임은 오는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4일까지 16일 동안 열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대회 공식 후원사인 신한은행이 아시안게임 마케팅에 가장 적극적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인천아시안게임 개회식 입장권 2억원 어치를 구매했다. 또 인천터미널 지점에 창구를 개설해 입장권 판매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개·폐막식 등 주요 행사가 열리는 날 선수촌, 프레스센터, 문학경기장 등에서 은행 업무가 가능한 이동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정보란을 신설, 다양한 이벤트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기원 정기예금도 출시했다. 한국 국가대표팀의 성적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지난 5월 현재 기준으로 5만3511계좌, 7828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외환은행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다음달 2일까지 '외화공동구매정기예금'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공동 모집금액에 따라 더 많은 이자가 지급되 소액예금자들도 우대이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판형 외화 정기예금 상품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금액은 제한이 없다. 가입 신청은 각 영업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가입 가능 통화는 미국 달러화(USD), 유로화(EUR), 일본 엔화(JPY), 영국 파운드화(GBP) 등 14개 통화다. 가입기간은 3개월에서 최대 1년이고, 최대 0.3% 포인트의 우대이율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적으로 한국팀 선전을 기원해 0.1% 포인트 우대이율을 준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달에 인천시와 개막식 입장권 2억원 어치를 구매하는 협약을 맺었다. 우리은행은 경기 불황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이번 입장권을 구매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인도네시아 선수단 후원" 신한은행 인도네시아TFT 서태원 부장(왼쪽에서 두번째)과 리타 수보우(Rita Subowo) 인도네시아 올림픽위원회 위원장(맨 오른쪽)이 선수단 대표에게 후원물품을 증정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김주하 NH농협은행장은 지난 15일 임직원, 직원들에게 마케팅을 전도하는 MC(마케팅코치 Marketing Coach & Cheum) 22명과 함께 '현장의 소리에 답이 있다'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농협은행 제공

체크카드 이용자 등 110만명 신용등급 상향

금감원, 평가 기준 완화

앞으로 우량 체크카드 고객은 신용카드와 동일한 신용평가 가산점을 받게 된다. 또 일회성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신용평점 하락 기준은 올해 안에 완화된다.

이에 따라 연내 110만명의 신용등급이 1~2단계 상향조정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크카드·현금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신용평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체크카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신용카드보다 신용평가가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 6월말 기준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9900만장으로 신용카드 발급 장수인 9400만장을 앞질렀다.

하지만 체크카드 사용자의 90일 이상 연체율이 4.84%에 달하는 등 신용카드(2.07%)보다 불량률이 높다는 이유로 체크카드 사용가점이 6분의 1 낮게 적용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해 신용평가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실적을 합산해 신용카드 사용자와 똑같은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우량 사용자는 최근 3년내 신용카드 실적이 있으면서 연체 기록이나 다중채무(3개 금융기관 신용대출 보유 또는 6개월내 현금서비스 이용)가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 연체가 없는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신용평가와 신용회복상 불이익도 완화된다.

금감원은 최근 1년내 현금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고, 9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는 이용자에 대해 신용평점 하락 기준을 낮춰주기로 했다. 아울러 전액상환시 신용등급 회복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체크카드와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개선되면 올해 안에 110만명의 신용등급이 1~2단계 상향조정된다.

3개월 동안 월 10만원 이상을 결제한 체크카드 가점 대상자 291만명 중 95만명(32.6%)의 신용평점이 높아지고 이중 76만명은 신용등급이 1~2단계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박재찬기자 [illegible]

하반기 200여명 채용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은 올 하반기 200여명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농협은행 140여명, 농협생명 30여명, 농협손해보험 30여명 등이다.

지원서 접수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각 자회사별로 이뤄지며, 각 자회사간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필기시험은 10월 19일에 공동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채용은 학력, 학점, 전공, 어학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Open) 채용 방식으로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은 자회사별 다양한 절차를 통해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12월 중 발표된다. /[illegible]기자

노조 "주주제안 통해 임 회장 해임 추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를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 이사 해임, 사외이사 추천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KB금융그룹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은 0.75%로서 상법상 금융투자업자 특례조항에 따라 ▲이사해임 청구(지분율 0.125% 필요)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0.75%) ▲사외이사 추천(0.25%) 등을 모두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주주제안을 발의한 뒤 우리사주조합 등 소수 주주의 동의를 얻으면 임시 주총 소집과 임 회장에 대한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임 회장이 주총 의결을 통해 사내이사에서 해임되면 대표이사직도 수행할 수 없다.

성낙조 국민은행노조위원장은 "임 회장의 사퇴가 지연될수록 직원과 KB금융그룹 전체의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며 "임시 주총 소집을 통해서라도 KB의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데에 직원·주주·고객들의 뜻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illegible]기자

금감원, 경남·광주은행 '정밀진단' 착수

다음 달 각각 BS금융(부산은행)과 JB금융(전북은행)으로 인수절차가 마무리되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정밀진단에 착수한다.

이들 은행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 내부통제 부실의혹을 받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 검사인력을 보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정밀 진단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이 외형 확대를 위해 여신 취급 한도를 과도하게 조작한 부분은 없는지, 은행 직원들이 자체 내규나 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자회사였던 이들 은행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민영화 작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은행 내부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경남은행은 지난달 중순 자체감사에서 경남은행의 한 지점에 근무했던 직원이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들 은행 외에도 다른 지방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증권사 취업문 올해도 '바늘 구멍'

채용 증권사도 모집인원 줄여… 합격하려면 "적극성 어필하라"

올해 증권가의 취업 문은 더 좁아질 전망이다. 최근 수 년째 신입 채용을 전혀 하지 않는 증권사가 늘고 있고 채용을 하더라도 인원을 예년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곳들이 많다.

다만 일부 중소형사와 대형사 채용은 이어지고 있어 구직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 중인 곳은 신영증권 정도에 불과하다.

신영증권은 지난 11일부터 신입 채용 원서접수를 시작했으며 오는 11월중 합격자 발표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영증권의 신입 채용 규모는 40여명이었다.

키움증권은 오는 12월 신입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다. 채용 인원은 예년 수준인 1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중소형사 가운데 KTB투자증권은 지난해 9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도 웹사이트 등을 통한 수시 채용이 이뤄진다.

하이투자증권은 현재 올해 신입 채용 규모를 조율 중이다. 지난해 채용 인원은 5명이었다. 메리츠종금증권의 경우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신입 공채를 실시하지 않는다.

대형 증권사들도 몇 곳을 제외하면 올해 신입 채용 계획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 46명의 신입을 뽑은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처음으로 공채를 시행하지 않는다. 한화투자증권과 대신증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입 공채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적자폭이 컸던 데다 2012년 푸르덴셜투자증권과의 합병에 따른 인원 증가와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과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신입 채용 절차를 준비 중이라 취업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DB대우증권은 이달 말 정식 채용공고를 발표한 뒤 11월까지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70여명을 뽑았으며 올해 채용 인원은 미정이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채용 공고를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해 30여명을 뽑았으나 올해 채용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

삼성증권도 조만간 채용 공고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신입 공채를 위해 이달 초부터 대학 순회 채용설명회를 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잠정적으로는 지난해 70여명보다 적은 인원을 뽑을 전망이지만 우수 인재가 몰리다면 유동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바늘구멍처럼 좁아진 증권사 입사에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업계 종사자들은 '적극성'을 최우선 자질로 꼽았다.

장석진 KTB투자증권 홍보팀장은 "자본시장의 성격상 업무강도가 높으며 현재는 그렇게 많은 인력은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라며 "인턴제를 통해 지원자가 증권 직종에 적성이 있는지 살펴보며 신입 공채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스펙과 함께 프레젠테이션(PT)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20억 공모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17일부터 19일 오후 1시까지 ELS 2종을 총 2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이다. /하이투자증권 제공

"한국서 中 요우커 연 30조 쓴다"

삼성증권 분석

"앞으로 3~5년간 중국 요우커(游客·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시장에 대거 몰려오면서 국내 레저·카지노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전종규 삼성증권 투자전략팀 책임연구위원은 1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018년까지 중국 요우커 1000만명이 한국을 방문해 4배 이상 소비를 늘리면서 3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쓸 전망"이라며 "현 7조원 수준의 한국 내 소비를 이처럼 늘리면 우리나라 시장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소비시장에서 중국인의 씀씀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특히 아시아 시장 중 일본, 대만 등지보다 한국이 가진 비교우위를 고려할 때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갈등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문화적 차별성이 크지 않은 대만 사이에서 한국의 차별성이 두드러질 것"이라며 "한국의 잘 구축된 휴양 및 쇼핑 인프라도 요우커를 끌어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요우커들의 최선호지였던 홍콩이 요우커 입국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라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요우커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기자 hjkim1@

신종 주가조작 세력에 칼 빼들어

알고리즘 매매·현·선물 연계 등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

금융당국이 알고리즘 매매 등 신종 기법을 동원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메스를 들었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은 알고리즘 매매와 현·선물 연계 주가조작 등의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알고리즘 매매(algorithm trading)란 정해진 주가와 정보 등의 조건(알고리즘)에 따라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는 고도화된 매매로 시세 조종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수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올해 처음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조사단을 출범한데 이어 지난 5월 국제증권기구(IOSCO)의 불공정거래 조사관련 정보교환협약에 가입해 중국과 홍콩 등 해외 조사 당국과 정보를 협력키로 했다.

조사단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검찰 등 유관기관이 모인 협의체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콘트롤타워(지휘부)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거래 동향 등의 모니터링에서 심리·조사까지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절차)을 적용해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기간도 100일 이상 단축된 3개월로 줄였다.

그간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가 마무리되기까지 통상 7개월 이상이 걸렸다.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등에 강도 높은 조사를 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건 적수 건수 역시 2010년 201건, 2011년 222건, 2012년 271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186건, 올해(상반기) 60건으로 급감했다.

알고리즘 매매 등 신종 불공정거래의 조사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이란기자 rlee@

LIG손보, 자동차보험 4종 출시

LIG손해보험이 운전자 맞춤형 자동차보험 플랜 4종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상품 중 '부부사랑플랜'은 만 18세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 운전자를 위한 상품이다. 부부Care 특약에 가입하면 7급 이상 상해사고 시 가사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여성Care와 자녀Care 특약에서는 여성과 자녀 상해에 대한 성형지원금과 후유장해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내차지킴플랜'은 프리미엄차량 담보 특약에 따라 수리 기간별 대체 교통비를 지급한다. 폐차 이후 신차 구입 시에는 취등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신차전부손해 특약은 새차가 차량가액의 70%를 초과하는 손해만 발생해도 차량가액 전부를 지급한다.

'로얄플러스플랜'은 운전자를 위해 개발된 VIP 보장보험으로 대물 보상 한도를 최대 10억원, 자동차상해 최대 5억원을 보장한다.

'휴일행복플랜'은 주말에 운전을 많이 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상품이다. 주말사고위로금 특약에 가입하면 주말에 사고 발생 시 사망 1000만원, 치료 시 사고당 20만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김대현 LIG손해보험 자보담당 상무는 "앞으로 보험의 보장 기능을 보다 강화시킨 플랜형 자동차보험상품이 새로운 시장 트렌드로 자리잡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현대차, 대형 상용차 'H350' 출격

유럽 전략형 세미 보닛 타입 …독일 하노버서 최초로 공개

현대자동차가 이달 24일 열리는 하노버 국제상용자박람회에 자사 최초의 대형 상용밴인 H350을 공개한다.

공식 데뷔에 앞서 현대차가 글로벌 사이트를 공개한 H350은 유럽 대형 상용차 시장을 위해 세미 보닛 타입으로 설계됐다. 현대차는 그동안 한국에서 중대형 버스와 트럭에 모두 캡 오버(엔진룸 위에 승차공간이 있는 타입) 스타일을 채택해 왔으나, 이번에는 북미와 유럽 수출을 염두에 두고 세미 보닛타입을 택했다. 전면 충돌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닛이 앞으로 나온 세미 보닛 스타일 채택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앞 모습은 현대차의 패밀리룩인 육각형 그릴로 단장했고, 측면까지 이어진 헤드램프에는 LED 주간주행등을 장착했다. H350은 화물밴과 승용버스, 장거리 주행용 플랫베드 트럭 등 세 가지 차체 스타일로 나올 예정이다. 이 차의 적재용량은 1.4톤이고, 견인력은 2.5톤이다.

실내에서는 승용차 분위기의 대시보드와 3인용 앞좌석이 눈에 띈다. 대시보드 상단과 하단에는 다양한 수납공간도 마련됐다. 승하차는 그랜드 스타렉스와 마찬가지로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하게 된다.

H350의 최대 경쟁자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스프린터가 꼽힌다. 현대차가 개발 과정에서 벤치마킹했던 이 시장의 최강자다.

H350은 현대차의 터키 현지 파트너인 키선 오토모티브에서 위탁 생산될 예정이며, 하노버 국제상용자박람회에 이어 10월 열리는 파리 모터쇼에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김태균기자 [illegible]

"30년후 받을 편지 보내세요!"

SKT, 모바일 서비스 '100년의 편지' 출시

'100년의 편지'.

최대 30년 후까지 동영상, 사진, 음성 등의 방식으로 메세지를 전달한다. SK텔레콤이 고객에게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서비스다.

'100년의 편지'는 SK텔레콤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고객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출시한 서비스로,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100년의 편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음성으로 녹음할 수 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10분 이내의 동영상 파일 첨부도 가능하다. 첨부 파일과 함께 작성하는 텍스트는 최대 2000자까지 입력이 가능하다. 동영상과 음성은 최대 10분, 사진은 최대 10장까지 전송할 수 있다.

발신자는 100년의 편지 수신날짜를 최소 한 달부터 최대 30년까지 지정할 수 있다. 발송할 수 있는 편지는 스팸을 금지하기 위해 최대 5개까지로 제한했다. 접수기간 중 보냈던 편지를 삭제하거나 수신인이 편지를 받으면 횟수는 다시 늘어난다. 편지마다 1명의 수신인을 지정할 수 있고, 복수 수신인 지정을 원할 경우 SK텔레콤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발신 서비스는 SK텔레콤 고객만 가능하며, 다른 통신사 가입 고객을 수신자로 설정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100년의 편지를 받게 되는 시점이 최대 30년 후임을 감안해 발신자가 앱에서 수신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다. 또 1년 주기로 발신자에게 편지가 저장돼 있음을 문자로 알려준다. /이재영기자 [illegible]

웹OS TV "생각보다 쉽네" LG전자는 웹OS 탑재 스마트TV 의 간편한 사용성을 강조한 바이럴 영상으로 '웹OS 일러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빈빈드가 괜다 는제목의 이 동영상은 스마트TV 사용법을 몰라 난감해하는 노부부를 웹OS TV 캐릭터인 빈빈드(bean bird)가 도와주는 내용이다. /LG전자 제공

삼성전자 미러리스 카메라 'NX1'

야구·골프 빠른 움직임 포착

삼성전자가 야구나 레저스포츠 등 빠른 움직임 촬영에 특화된 미러리스 카메라 'NX1'을 공개했다.

16일~21일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카메라 전문 전시회 '포토키나 2014'를 앞둔 15일(현지시간)에 '삼성 프리미어 2014 – NX' 행사를 열어 최고 사양의 렌즈 교환형 미러리스 카메라 'NX1'을 세상에 내놨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와 정확성이라고 삼성측은 밝혔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이미지 프로세서 'DRIMe V'를 탑재했으며 0.055초 속도의 자동초점(AF) 기능이 있다. 셔터 속도는 8000분의 1초이며, 연사 속도도 업계 최고 수준인 초당 15장이다.

삼성전자는 야구 경기의 타격 순간과 같은 고속 장면을 인식해 최적의 순간을 자동 촬영하는 '삼성 오토샷' 모드를 새로 적용했다. 또 고해상도 동영상 촬영도 지원된다.

디자인 면에서는 전통적인 카메라 디자인과 견고한 마그네슘 합금 본체로 고급스러운 느낌과 내구성을 갖췄고 인체공학적 설계로 쥐는 느낌도 뛰어나다.

미러리스 카메라 최초로 블루투스를 탑재하고 와이파이(Wi-Fi), 무선랜)와 근거리 무선통신(NFC)을 장착해 촬영한 이미지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한명섭(사진) 삼성전자 이미징사업팀장(부사장)은 "미러리스 카메라를 새롭게 정의하는 NX1을 통해 프리미엄 카메라 시장을 본격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훈기자 [illegible]

대우조선해양 LPG운반선 2척 수주

초대형 1654억원 규모

대우조선해양이 초대형 LPG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아시아지역 선사로부터 8만4000㎥급 초대형 LPG운반선(이하 VLGC·Very Large Gas Carrier)을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수주액은 약 1억6000만 달러(1654억원) 규모다. 이 선박은 길이 226m, 폭 36.6m 규모로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17년 고객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올해에만 총 12척의 VLGC를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현재까지 수주 금액은 61억 달러에 달한다.

VLGC는 전세계 LPG 수송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선박으로, 아시아와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고유가로 LPG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운임도 상승이 발주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계약식에는 대우조선 노동조합 성만호 위원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 8월 임단협을 마쳐 24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노사 화합을 통해 세계 최고 품질의 선박을 적기에 인도해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illegible]

견본주택 보고 살림살이도 장만

건설사 분양이벤트 눈길

<경품 이벤트 실시하는 주요 분양단지>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총 가구수	공급시기	경품
충남 서산시 테크노밸리 A9a블럭	[illegible]	59~74	590	9월	미니벨로 자전거 루이비통 가방, 벤츠
충남 천안 아산탕정지구 1-A4블록	천안불당 호반베르디움5차	84~97	705	9월	TV, 김치냉장고, 노트북
충남 천안시 아산탕정지구 복합1블록	천안불당 호반베르디움3차	84~112	1371	9월	
서울 성북구 보문3구역	보문파크뷰자이	45~84	1186	9월	냉장고, 모니터 아이패드미니, TV
부산 사하구 구평동	e편한세상 사하	59~84	1068	9월	텐트, 바비큐그릴, TV, 청소기
부산 금정구 장전동	래미안장전	59~114	1938	11월	김치냉장고, TV 등

분양시장 성수기를 맞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쏟아지면서 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실시된다. TV, 청소기, 냉장고 등 살림살이는 물론 아이패드, 벤츠, 명품가방 등의 대박 상품도 노려볼 수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서산 테크노밸리(가칭)' 지역주택조합은 계약자에게 풍성한 경품을 준다. 추첨을 통해 대상과 1등 1명에게는 각각 아파트와 벤츠C클래스를, 2등 3명에게는 3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3등 100명에게는 자전거를 줄 예정이다.

아파트가 위치한 서산 테크노밸리 A9a블록은 초대형 중앙공원 및 상업시설이 가까워 쾌적하면서도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단지 내 독서실, 피트니스센터, 게스트룸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총 590가구, 전용면적 59~74㎡로 이뤄졌다.

같은 달 부산 사하구 구평동 일대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e편한세상 사하'는 실생활과 여가활동에 유용한 경품 이벤트를 벌인다. 견본주택 방문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텐트와 바비큐그릴 등 캠핑용품이 제공되며, 청약자에게는 TV와 청소기·밥솥·토스트기·전기주전자 등이 증정된다.

전용면적 59~84㎡ 1068가구의 대단지로 서부산권 최초의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 잔디광장과 연계된 대형 피트니스센터와 골프시설, 북카페,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단지 내 들어선다.

서울 성북구 보문3구역 재개발 단지 '보문파크뷰자이'는 방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참가를 원하는 고객이 홈페이지를 통해 행운번호를 받은 뒤 견본주택을 방문하면 경품응모가 완료된다. LG 50인치 벽걸이TV 1대와 LG디오스 냉장고(802L) 2대, 아이패드미니2 6대, 27인치 모니터 5대가 경품내용이다.

총 1186가구, 전용면적 45~84㎡로 지하철 6호선 창신역이 도보 10분 거리다. 실내수영장을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도서관, 카페 등이 함께 지어진다.

10월 부산 금정구 장전에서 공급될 '래미안 장전'은 1순위 청약통장 소유자가 다른 1순위 통장 소유자를 소개하는 '친구야, 래미안에서 놀자'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친구를 소개한 사람들은 향후 추첨을 통해 김치냉장고와 LED TV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단지 내 대규모 중앙광장과 티하우스, 거울연못, 바닥분수, 물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총 193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59~114㎡로 이뤄졌다.

/박선옥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집전화도 무제한 1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LG유플러스 본사에서 모델들이 3.5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신규 집전화 '070 touch'와 유무선 무한자유 요금제를 소개하고 있다. 유무선 무한자유 요금제는 3년 약정 시 월 2만6000원(부가세 별도)에 기본 됐다 /뉴시스

캐논, '7D Mark II' 공개

최고급 기종 버금 성능 자랑 하이 아마추어 사용자 겨냥

캐논이 최고급 기종에 버금가는 성능을 갖춘 중급형 DSLR 카메라 신제품을 출시한다.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은 16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PS-C 타입의 DSLR 카메라 'EOS 7D Mark II'를 공개했다. 중급 'EOS 7D'의 후속 기종으로 캐논의 혁신광학기술력을 응집해 성능이 최고급 기종인 'EOS-1DX'에 못지 않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플래그십 모델에만 붙이는 마크를 제품명에 포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약 2020만 화소의 APS-C센서를 탑재했으며, 캐논 DSLR 카메라 중 최초로 65포인트의 AF(자동초점) 기술을 실현해 빠르고 정확하게 피사체를 포착한다. 모든 AF 포인트가 크로스 타입이기 때문에 초점을 잡을 때 피사체의 컬러나 색상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OS 최초로 AF 영역 선택 레버를 채택해 뷰파인더에서 눈을 떼지 않고 AF 영역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컴퓨터의 CPU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영상처리엔진 '듀얼 디직6'를 두 개 장착해 초고화소의 이미지나 영상을 빠르게 처리한다. 특히 초당 약 10매의 연속 촬영을 지원해 스포츠 경기 촬영 등 역동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촬영 가능하다.

1DX에 탑재됐던 자동 움직임 추적 AF 모드와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하는 iTR AF 기능을 통해 피사체의 속도와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도 자동으로 초점을 맞춘다. 감도는 ISO 16000까지 지원하며 확장시 ISO 51200까지 높일 수 있다. 제품은 오는 11월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은 미정이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애플·삼성 하반기 스마트폰 경쟁 본격화

아이폰6 하루 만에 400만대 예판 갤럭시노트4 예약판매 초읽기

애플과 삼성전자가 신제품 아이폰6와 갤럭시노트4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경쟁에 돌입했다.

아이폰6의 예약판매는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갤럭시노트4는 독일에서 예약판매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소비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애플은 16일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의 24시간 동안의 예약주문이 400만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2년 전 아이폰5가 나왔을 때 72시간 만에 세운 기록과 맞먹는 수치로 사상 최고 기록이다.

애플은 또 이날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등 2차 출시 22개국을 발표했으나 한국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통신3사는 국내 판매 시기 이르면 다음 달 말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갤럭시노트4로 대화면 '그 이상'을 내세우며 출시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일 열린 신제품 공개행사(언팩)에서 갤럭시노트4가 10월 전 세계 150개국에서 출시된다고 예고했으나 좀더 이른 시기에 판매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통신3사는 오는 18일 갤럭시노트4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최고 사양의 첨단 기술을 대거 탑재한 갤럭시노트4와 고 스티븐 잡스의 그늘에서 벗어난 애플의 반격이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구직자가 '삼고초려' 받는 시대 온다"

이국명 기자의 취업토크
잡코리아 본부장 최창호

탈스펙·역량채용 확산 붐 타고 소셜 채용 서비스 '웰던투' 화제 포트폴리오로 개인 브랜드화해야

"역량있는 인재라면 기업으로부터 '삼고초려'를 받는 일이 조만간 흔해 질 겁니다. 구직자들이 일사할 회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소셜 채용을 통해 찾은 유능한 인재에게 입사를 제안하는 것이 일반화된다는 이야기죠.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입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최창호 본부장은 이렇게 자신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소셜 채용이 국내에도 곧 정착될 것이란 확신이다. 이런 트렌드 변화를 읽지 못하면 험난한 취업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미국 등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개인적인 것과 취업을 위한 것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업에서 인재가 필요할 경우 SNS를 통해 소개받는 것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이죠. 페이스북·트위터 등 거대 SNS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링크드인과 같은 채용 전문 SNS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등 포트폴리오 수업

잡코리아는 지난해 말 소셜 채용 서비스인 '웰던투(Welldone to)'를 선보였다. 자신을 직접 드러내기 꺼려하는 문화를 감안해 개인보다는 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했다. 참여했던 과제나 프로젝트, 회의, 교육, 사업수주 등 직무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손쉽게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 때문인지 패션·디자인 등 포트폴리오에 익숙한 직종에서만 보이던 웰던투에 대한 관심이 기획·마케팅·인사 등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웰던투 덕분에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삼성SDS에 입사한 한 구직자는 프레젠테이션 면접에서 자신의 웰던투 서비스를 활용해 면접관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서류전형을 웰던투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는 기업들도 있죠. 성균관대·경희대·강원대 등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관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워드 수상작 참조하면 OK

그럼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 본부장은 모방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충고했다. 웰던투 사이트에서 자신과 관련된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참조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광고·패션·디자인·스토리·요리 등 그동안 잡코리아가 진행했던 어워드 수상작도 훌륭한 모범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실패한 경험도 정리해 놓으면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트폴리오 관리는 벼락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물론 대학생들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 본부장은 이같은 취업시장 트렌드 변화를 읽지 못하는 구직자·직장인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나타냈다. 상업성이 짙은 취업카페 등의 잘못된 취업정보를 맹신해 스펙 쌓기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스펙 대신 역량을 보고 뽑는 기업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믿으려 하지 않는 구직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믿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이죠.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자신감이 결여될 때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믿고 절대 좋지 마세요."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기자 son@

"지원동기에 심혈을 기울여라"

하반기 공채 서류합격 노하우

서류전형은 취업에서 가장 높은 문턱이다. 수백대 일의 경쟁률은 물론 탈락자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단계도 바로 서류전형이다.

입사지원서가 최종 합격의 단초가 되는만큼 구직자들의 관심도 제일 높다. 서류전형 합격률을 높이려면 입사지원서의 '지원동기'에 공을 들여야 한다.

16일 잡코리아 통계에 따르면 인사담당자가 신입직 자기소개서 검토 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항목은 '지원 동기'(39.6%)였다. 실제로 신입직 자기소개서 평가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항목도 '지원 동기'가 20.6%로 1위였다.

이어 '도전했던 일과 성공사례'(16.8%), '입사 후 포부'(14.8%), '글의 구성 및 문장력'(12.3%), '성장 과정'(9.4%), '성격의 장점'(6.5%), '올바른 맞춤법 사용'(4.3%) 순이었다. 구직자가 이 회사에 왜 지원했는지를 설득력있는 문장으로 표현해야 서류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직무에 관련된 경력사항을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잡코리아 조사에서 인사담당자의 40.4%는 '지원자의 경력사항을 유심히 본다'고 밝혔다.

한편 입사지원서는 원서 제출 직전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람인은 기업 인사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서류전형에서 지원자의 실수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5%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평가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잦은 오타와 문법 오류(24.8%)가 꼽혔다. 이어 기업명 잘못 기재(19.1%), 지원자격 미충족(12.7%) 등이 거론됐다. 인사담당자의 83.4%는 '이런 실수 때문에 해당 지원자를 탈락시켰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기본이 덜 된 것 같다'를 들었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하반기 취업 성공을 원한다면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 후에는 꼼꼼한 점검을 통해 실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힘내라 대한민국'에 '고맙다 친구들'로 화답 15일 그래피티 아티스트 [illegible] 작가들이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벽면에 '고맙다 친구들(Thank You, Friends)'이라는 벽화를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유명 벽화 예술가인 제투스와 한국인 예술가들이 한국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그린 그림 '힘내라 대한민국(Cheer Up, Korea)'에 대한 화답의 의미를 담았다. /연합뉴스

하반기 취업 준비 비용 153만원

구직자가 올 하반기 취업 준비를 위해 평균 153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취업준비생 435명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12월) 취업 준비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153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생의 월 평균 생활비 40만 8000원과 맞먹는 금액이 취업 준비 비용으로 지출되는 셈이다.

취업 준비에 가장 많이 쓰이는 항목은 정장 구입과 메이크업 등의 '면접 준비 비용'(24.8%)이었다. 이어 토익·토익 스피킹 등의 '영어시험 응시료'(22.8%), '자격증 학원 및 자격증 시험료'(15.2%) 순이었다.

응답자의 89.7%는 늘어나는 취업 준비 비용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설문 참여자의 32.4%는 아르바이트로 취업 자금을 충당하고 있었으며 28.3%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영 인크루트 상무는 "취업포털과 커뮤니티에서 제공되는 우수 정보를 활용하면 취업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취업 준비 비용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방편"이라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unique@

새로 나온 책

꽃보다 라오스
후지타 아키오/동아시아

라오스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인 일본의 현지 전문가가 라오스 정부가 공식 발간한 라오스 공식 가이드(영어판)를 토대로 동아시아인에게 적합한 내용을 선별해 한국어로 옮긴했다. 서양인의 시각을 넘어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동아시아인들이 관심 가지고 궁금해할 만한 요소들이 가득하다.

친구의 디저트
김지혜/웰러스

사계절에 어울리는 디저트 레시피 56가지를 소개한다. 매 장마다 디저트 요리에 필요한 베이직 레시피를 수록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디저트도 스스로 응용할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하고 있다. 벚꽃 구경을 가서 남자친구와 다툰 이야기 등 소소한 이야깃거리도 담았다. 아기자기한 일러스트와 큼지막한 사진은 보는 즐거움까지 더한다.

백설춘향전
유현종/노블레스

춘향전이라는 전통적 소재와 '백설공주'라는 북유럽 구전 동화를 조선 궁중 비화로 재해석해 익숙한 소재를 새로운 이야기로 끌어올린 참신한 역사 로맨스다. 춘향전의 원전이 숙종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에서 착안, 조선 궁중 비화 속 이인을 모티브로 춘향을 완전히 새롭고 입체적인 인물로 재탄생시켰다.

웨스트와 클레라
카트리크 드빌/큐리

프랑스 문단과 언론의 무수한 찬사를 받은 이 작품은 과학계의 한 이 외적인 인물의 일대기이자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 인도차이나 빈도를 배경으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50가지 증상별 손가락 요기
다즈무라 오사무/판테나

세계적인 요가 권위자이자 전통 요가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다즈무라 오사무가 오직 손만을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요가를 개발했다. 그는 "손과 전신의 연결을 이해하기 위해 나는 한국의 고려수지침 원리를 배우고 연구했다. 그리고 고려수지침의 놀라운 원리에 나의 40년 요가 경험을 더해 손가락 요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너는 내게 너무 깊이 들어왔다
곽효환/교보문고

시인 곽효환이 백석·이용악·윤동주 등 우리 근대문학을 꽃피운 시기의 작고 시인들로부터 현재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고은·신경림·신달자·정호승 등 원로, 중진·중견 시인들의 작품을 고루 소개한다. 더불어 섬세하고 담백한 곽효환 시인의 덧붙인 해설은 시인과 작품 자체를 이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루 20분 미국 조등학교처럼
심미혜/선주리원

13년간 미국과 캐나다의 교사들을 훈련시켜온 저자는 시중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 대신 진짜 미국식 교육을 알려준다. 오래 공부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놀고 취미활동 즐기느라 공부는 뒷전인 것 같은 미국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앞길을 잘 개척해 나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소크라테스와 유대인
마리본 레너드/생각과 사람들

서양 문명의 근간이 되는 이 두 사상을 철학적 시각에서 그 배경에서 외형적 모습까지 심도 있게 분석했다. 저자는 나무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다면 왜 한 그루의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서양 문화의 사상적 기반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사랑 한 술
차규리/푸른봄

실용음악과 교수이자 대중문화평론가로 글을 쓰고 있는 저자가 자폐아 아들과 함께한 사랑의 순간들을 담은 이야기를 엮은 에세이다. 열네 살 중학생이지만 다섯 살 정도의 사회성을 지닌 아들 준우와 아들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있는 아버지가 함께 한 사랑의 순간들이 담담하게 기록됐다.

/박지원기자 [illegible]

말단 영업사원이었던

골드만삭스 사장의 성공 비결

저자 성장 과정·비결 소개

이 책은 말단 영업사원으로 시작해 국제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골드만삭스의 사장까지 오른 저자의 성공 비결을 담았다.

저자가 말하는 영업은 고객과 신뢰를 쌓아 마음을 사로잡고 대화를 통해 원하는 것을 파악해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이다.

더불어 그는 소심한 성격을 극복하고 치열한 영업의 세계에서 살아남고자 필사적으로 개발한 '절대 대화법'을 소개한다. '절대 대화법'은 1분 안에 세 가지 포인트를 전달하고, 10초 만에 결정을 유도하는 설득의 대화법이다.

책에서 소개하는 업무 노하우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저자는 이 책이 업무력을 향상시키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줄 유익한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왜 나는 영업부터 배웠는가
도키 다이스케/다산3.0

책은 '영업은 기업 활동의 최전선에서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통해 비즈니스를 성사시키는 일이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경영 환경이 고객 중심 시장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시대가 원하는 리더는 '현장에서 터득한 신뢰와 소통 능력'을 갖춘 '영업사원'이며, 저자 역시 골드만삭스 사장에 오를 수 있던 비결이 '영업'에 있다고 단언한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정형화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수재들의 이야기가 아닌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저자의 성장 과정과 비결을 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저자는 소심한 자신이 노력을 통해 사장 자리까지 올랐음을 강조하면서 비즈니스맨들이 신뢰 형성 방법과 대화의 기술을 연마한다면 그 누구라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수현기자 ks [illegible]@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내 삶의 여행지

tvN '꽃보다 청춘'으로 이름이 알려진 북부 남서부 사막의 오아시스 마을 '와카치나'다. 인어가 된 공주의 전설이 스며있는 곳으로 지금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다는 꿈의 여행지 중 하나가 됐다. 마음의 안식과 자연의 경이로움, 그리고 색다른 감동을 얻을 수 있는 당신의 꿈의 여행지로 지금 떠나자. – 죽기 전에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여행 (시몬/시공사·종–

/정재호기자 [illegible]

입맛만 바꾸면 다이어트 성공!

화제의 책

다양한 방송에서 검증 마친 거꾸로 식사법

거꾸로 식사법
박민수/처음가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중독은 다이어트 중독이다. 그만큼 다이어트에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다이어트는 원하는 음식을 억지로 참고 억누르는 고통스러운 과정의 연속이다. 또 간신히 체중 감량에 성공해도 그동안 먹고 싶은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생각에 식욕이 폭발하면 요요현상을 부른다.

사실 이런 다이어트의 발목을 잡는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입맛에 있다. 입이 끊임없이 달콤하고 짭쪼름한 음식을 갈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입맛을 바꾸면 다이어트의 성공이 보장된다. 달달한 군것질이나 자극적인 인스턴트 식품 대신 건강한 음식을 찾게 되고 억지로 참고 버티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다.

그렇다고 입맛을 바꾸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미스코리아 출신 박사론아 출신 등 20kg을 감량한 '거꾸로 식사법'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디저트 대신 애피타이저를 먹고 밥보다 채소를 먼저 섭취하면 된다. 또 숟가락 대신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야 한다.

책의 저자인 고려대 의대 박민수 교수 역시 이 방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건강을 되찾았다. 이 비법은 이미 여러 방송에서도 검증됐으며 굶주림의 고통이나 혹독한 운동도 필요하지 않다.

쉽고 즐거운 다이어트는 없다는 편견을 버리고 '둔통한 입맛'을 '날씬한 입맛'으로 바꾸자. /정재호기자

쌀밥 대체 '슈퍼 곡물' 뜬다

다양한 레시피 등장, 간편 섭취 제품 잇따라 출시

최근 우리 국민들의 식습관이 건강트렌드에 맞춰 변모하고 있다. 건강을 위해 흰 쌀밥보다는 다른 곡물을 섞어서 섭취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미나 잡곡을 섞어 밥을 짓는 것은 기본이고 렌틸콩이다 귀리·퀴노아 등 이름도 생소한 곡물들을 섞어 먹고 있다. 이들 곡물들은 단백질·비타민·식이섬유 등의 유익한 성분이 일반 쌀보다 풍부해 '슈퍼 곡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돌(Dole)코리아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큰 이슈를 일으킨 렌틸콩과 장수식품으로 유명한 귀리를 1kg 소포장에 담은 '슈퍼씨드 렌틸콩'과 '슈퍼씨드 귀리'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슈퍼씨드 렌틸콩'은 100g당 소고기의 1.34배분의 단백질과 사과의 21배에 달하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 또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풍부해 다이어트 식단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B와 풍부한 엽산으로 임산부들의 건강 유지에도 탁월한 제품이다.

'슈퍼씨드 귀리'는 피부미용과 노화 방지에 좋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도와 변비예방에 좋으며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은 현미의 2배가량으로 다이어트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오뚜기의 경우 렌틸콩을 활용한 즉석 요리 제품 '3분 렌틸카레'와 '3분 렌틸짜장'을 최근 내놨다.

풀무원건강생활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인 '잇슬림'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국내 최초 냉장 즉석밥 '잇슬림 라이스 4종'(흑미곤약무밥, 아마씨드오곡밥, 검은약콩율무단호박밥, 녹차인귀리밥)을 선보였다. 다양한 잡곡과 함께 곤약·무·단호박·녹차잎 등 채소를 사용해 평균 150kcal(130g)로 기존 즉석밥 제품(130g 동일중량)보다 칼로리를 20% 낮췄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며 단백질 함량이 백미보다 50% 이상 높은 하이아미 품종의 쌀로 밥맛이 좋다.

농심은 귀리를 활용한 즉석밥을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귀리로 만든 '햅쌀밥 귀리밥'은 귀리와 경기도에서 재배한 고시히카리쌀을 섞어 영양과 맛을 함께 잡았다. 여기에 국내에서 재배된 다섯가지 현미(적현미·찰현미·녹현미·흑현미·메현미)에 고시히카리쌀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한 '햅쌀밥 오(五)현미밥'도 함께 판매한다.

천광검 프리미엄 홀푸드 전문기업 '오가니카'는 '발아퀴노아 볶은레드퀴노아렌즈콩·이집트콩·아마란스·치아씨드·볶음아마씨' 등 세계적으로 슈퍼푸드 열풍을 일으킨 7가지 곡물과 씨앗을 출시했다.

렌즈콩은 렌틸콩의 다른 이름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피부노화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집트콩은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나 골다공증을 예방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좋다.

아마란스는 남미 안데스 고산지대에서 5000여년 전부터 재배되어 온 곡물로 글루텐을 포함하지 않는 단백질이 풍부한 완전식품으로 성장과 소화를 돕는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도움을 준다.

/김승호기자 ***@metroseoul.co.kr

(왼쪽부터) 돌코리아, 오뚜기, 닥터오트커.

"품질 강화·상생프로그램 추진"

오비맥주 장인수 사장

오비맥주 장인수 사장이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품질강화와 상생프로그램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비맥주 제공

"먼저 최근 불거진 카스 맥주의 클레임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품질 향상과 프로세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비맥주 장인수 사장은 16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맥주기업인 AB인베브와의 재통합을 계기로 생산·구매·물류·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관리 시스템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에 편입된 만큼 다른 어떤 가치보다 '품질'로 먼저 인정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AB인베브의 '글로벌 품질인증 프로그램(VPO)'을 적용해 카스와 OB골든라거 등 오비맥주의 모든 브랜드를 스텔라아르투아·벡스·버드와이저·코가든 등 세계적 톱 브랜드와 똑같은 품질기준에 맞춰 생산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비맥주는 품질 관리 부문에만 2~3년간에 걸쳐 총 1200억원을 투입해 경기 이천과 충북 청원, 광주광역시 등 3개 지역 공장의 관련 설비와 운영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새롭게 확충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이와 함께 품질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각 맥주 브랜드별 맥주 원재료를 상세 공개 ▲맥주 제품 패키지 표면에 생산 담당시설명 표기 ▲제품 신선도 유지를 위한 '선입선출(先入先出)' 물류바코드 시스템 도입 계획도 밝혔다.

장 사장은 특히 "600년 양조전통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겸비한 AB인베브 소속의 세계적인 브루마스터를 국내에 초청해 소규모 맥주전문점(마이크로 브루어리)과 맥주 관련 창업 희망자, 맥주 만들기 동호회 회원, 일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맥주 양조에 관한 노하우와 기술을 교육하고 전수하는 '상생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현미기자

게토레이, 이상화 모델 광고 선보여

롯데칠성음료는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상화 선수를 모델로 '게토레이 화이트 스플래시' 광고를 선보였다고 16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최근 젊은 여성들이 당당하고 도전적인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열정적인 여성을 대표하는 금메달리스트 이상화를 모델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광고 속에서 이상화는 당당한 20대 여성 이상화로서 평소 훈련하는 모습, 끊임없이 자기관리 하는 모습 등을 다양하게 보여주며 열정과 노전정신을 드러냈다.

특히 운동을 하다가 지쳐 힘들어 하는 모습, 다시 일어나 운동에 집중하는 모습 등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이상화 선수의 평소 모습을 리얼하게 그렸다.

/박지원기자 ***@

'카라멜과 소금'의 이색·완벽 조합

엔제리너스커피, 천일염 사용 제품 출시

커피전문점과 커피 인구의 증가로 커피 메뉴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취향이 고급화되고 커피 본연의 맛을 넘어 새로운 맛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커피전문점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살린 이색 메뉴를 선보이며 고객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에는 커피나 디저트에 소금을 넣은 '솔티 메뉴'도 출시됐다. 옛날 유럽인들이 즐겨 먹던 커피로 유명한 소금 커피는 단맛에 소금의 짭짤한 맛을 더하면 단 맛이 더욱 강해진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커피와 소금이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재료의 만남은 재료의 맛을 살릴 뿐만 아니라 고정관념을 깬 메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엔제리너스커피는 이런 흐름에 맞춰 소금을 사용한 커피 1종과 디저트 2종 등 '솔티 메뉴 3종'을 출시했다. 커피와 디저트에 소금을 더해 달콤한 맛을 강하한 메뉴다. 제품에 첨가되는 소금은 일반 정제염보다 미네랄이 풍부한 국내산 신안 천일염을 사용해 차별화했다.

커피 메뉴 '솔티카라멜 마끼아또'(사진)는 원두와 소금이 만나 풍부한 커피 향과 짭짤한 소금의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색 커피 메뉴다. 달콤한 카라멜에 소금이 더해져 에스프레소와 카라멜 풍미가 진한 것이 특징이다.

커피뿐만 아니라 소금을 넣은 디저트도 출시했다. 디저트 신제품인 '솔티카라멜 애플타르트'는 달콤한 사과가 올려진 타르트에 시나몬과 솔티카라멜 시럽을 더한 제품이다. 아삭한 사과에 달콤 짭짜름한 소스의 조화가 인상적이다.

'솔티카라멜 허니브레드'(2900원)는 바삭하게 구운 식빵에 달콤한 솔티카라멜 시럽과 풍부한 향의 시나몬을 뿌려 달콤한 맛이 어우러지도록 했다.

/유현미기자

동아오츠카, 중학교 풋살대항전 모집

동아오츠카는 중학교 풋살대항전 '제1회 포카리스웨트와 함께하는 풋살 히어로즈 2014' 참가 학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홍명보장학재단이 함께하는 이번 대회는 동아오츠카의 청소년스포츠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성장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문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동아오츠카는 30일까지 서울시 중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선착순 128개 팀을 선발한다. 대회는 10월 한 달 간 진행되는 예선전을 통과한 8개 팀만이 10월 26일 본선에 오를 수 있다.

우승팀에게는 장학금 200만원이 주어지며 2등과 3등에게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이 전달된다. 또한 입상 학교에는 대회특전으로 서울시교육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아오츠카 홈페이지(www.donga-otsuk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팜므파탈 전혜빈, S라인 몸매 공개 보디가드는 배우 전혜빈과 전속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아름다운 여자'를 콘셉트로 한 언더웨어 화보를 17일 공개했다. 전혜빈은 화보에서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보디라인과 남다른 볼륨감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새롭게 지목석한 레오파드 패턴과 올 가을 트렌드인 브라운, 핑크 컬러를 적용한 언더웨어를 스타일리시하게 소화했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보디가드 제공

건조한 가을, 피부건강 빨간 불

수분 보충 충분히 해야

건선, 건성습진 등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건조한 가을철이 괴롭다.

건선은 습도가 낮아지고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철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건선은 경계가 분명한 은백색의 인설(각질)로 덮여 있는 홍반성 피부 병변이 특징인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열감과 가려움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가을철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습도 유지가 중요하다. 가습기 등을 이용해 실내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보습제를 발라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신경을 써야 한다.

건성습진 역시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닿으면 심해지는데, 평소 피부에 적절한 수분과 유분을 유지해 줘야 한다. 목욕이나 샤워 시에는 피부 표면을 거칠게 문지르지 말고 저자극성 비누를 사용한다.

이대목동병원 피부과 변지연 교수는 "건조한 가을에는 피부 표피층에서 수분이 줄어들면서 건선, 건성습진 등 각종 피부 질환이 악화된다"며 "발진, 각질, 가려움증이 심해지면 병원을 찾아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지은기자

엘로드, 인천AG 골프 대표팀 응원

30년째 후원… 메세지 카드 작성 이벤트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골프 브랜드 '엘로드'는 지난 1985년부터 골프 국가대표 선수에게 상비군 의류와 캐디백 등을 후원하고 있는 브랜드다.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의 골프에 대한 남다른 신념으로 시작된 선수 지원은 30여 년째 이어오고 있다.

오는 19일 개막하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골프 국가대표팀은 남여 단체, 개인 등 전 종목 금메달을 노린다. 공태현(호남대), 김남훈(성균관대), 김영웅(함평골프고), 염은호(신성고)와 이작국가대표 박결(동일전자정보고), 이소영(안양여고), 최혜진(학산여중)이 태극마크를 달고 금빛 홀인원을 준비하고 있다.

어종훈 엘로드 담당 상무는 "한국 대표 브랜드로서 엘로드가 골프국가대표를 30년째 후원하고 있는 것은 그 의미가 깊다"며 "또한 2016년 리우 올림픽에 골프 종목이 정식으로 채택된 만큼 프로 골프 못지 않게 아마추어 골퍼들도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엘로드는 골프 국가대표의 우승을 기원하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의미의 Win At All Costs(이하 WAAC) 이벤트를 전개한다. 전국 엘로드 매장에 비치된 메시지 카드에 응원 메세지를 작성하거나 엘로드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elordgo)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엘로드 클럽 '2014IRON M6 풀세트' 등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가볍고 따뜻하다…" 물세탁 가능

노스페이스, 보온재킷 VX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얇고 가벼우면서도 구스다운급의 보온력을 갖춘 보온재킷 'VX'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체 개발한 보온 충전재 VX(Vertical Excellence)는 활용해 방풍과 보온기능뿐 아니라 흡습·투습·속건성과 수분조절 기능을 갖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급격한 온도변화와 추위에도 고유의 보온성과 복원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해 쾌적의 신체 컨디션을 유지해주고, 땀과 물에 강해 물세탁이 가능하다고 회사 관계자는 덧붙였다.

'노스페이스 VX 슬림 재킷'은 몸판 전체에 다이아몬드 타입의 퀼팅 라인과 인체공학적 절개로 패딩이면서도 슬림하고 고급스러운 것이 특징이다. VX와 천연 울 소재를 혼용한 '노스페이스 VX 울 재킷'은 습도 조절·항균 기능이 뛰어나다.

VX재킷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인 팀코리아(Team Korea)에 지급돼 선수들의 야외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지은기자 이메일

원주, '아시아의 리오'를 꿈꾼다!

'2014 다이내믹 페스티벌' 오늘 개막

17일 오후 6시 강원도 원주에서 '2014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www.dynamicwonju.com)'이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아시아의 리오'라 불리는 축제는 '길, 사람, 소통'이 주제다.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일상적인 길이 축제의 주요 무대로 화려하게 변신한다. 특히 축제기간 동안 원주 전역에서 진행되는 '댄싱카니발'은 200m가 넘는 거리 전체가 무대로 공연 형식의 퍼레이드를 만나볼 수 있다.

'강원도민 운동의 날'로 지정된 개막일에도 화려한 공연이 준비된다. 무형문화재인 매금찬초, 이생강 고수 등 유명 국악인들과 전국 농악단의 홍겨운 한마당이 이어지고 강원감영 관찰사 순례행차 재현이 식전 공연으로 마련된다.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로 2018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플래시몹 '함께 두 평창'이 사람들의 눈을 슬겁게 한다. 달샤벳, 김종서밴드 등의 초청가수 공연과 축하 퍼레이드도 빠뜨릴 수 없는 공연이다.

이와 함께 군 장병들과 함께하는 군악의 날(18일), 영국 팝페라 가수 폴 포츠와 원주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만나는 클래식의 날(19일) 등도 색다른 재미를 더한다. 게다가 환경과 안전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그림 세이프놀이터와 창작자와 소비자가 함께 소통하는 예술 시장 프리마켓, 그리고 컴퓨 페스티벌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새로운 추억을 선사한다.

여기에 축제는 시민과 관람객, 그리고 공연자들이 함께 즐기는 행사를 지향하고 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1명의 시민기획단이 축제 기획과 실행 전반에 참여했으며 800명의 원주 시민합창단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물한다. 또 폐막식에서는 댄싱카니발 수상자를 심사할 시민심사단 100명이 참석한다. 문의 033)763-9402 /황재희기자 hanul589@

metro entertainment

"연애하고 싶어요~♥"

조선총잡이 민중의 영웅 **이 준 기**

의리 지켜준 시청자들께 감사
남상미와의 키스신 나만 좋았다
연말 시상식 기대? '정도전' 있어

KBS2 드라마 '조선 총잡이'가 12.8%(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종영했다. 박윤강(이준기)은 조선의 영웅이 됐고 정수연(남상미)과의 사랑도 이뤘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준기를 만났다. 종영 후 2주 동안 이준기는 개화기 격변의 시대를 대변하는 인물이 아닌 힙합 스타일에 연애를 하고 싶은 32세 청년으로 돌아와 있었다.

'조선총잡이'가 큰 사랑을 받았다

기쁘나 그렇다고 새로운 한국형 영웅이 탄생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다. 다만 좋은 시청률로 의리를 지켜 준 시청자에게 고맙다. 고생한 만큼 사랑 받고 끝내서 홀가분하다.

- 남상미와 재회했다. 2007년 드라마 '개와 늑대의 시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개와 늑대의 시간 때 남상미는 마냥 동생 같았다. 애정 신을 찍어도 어리고 귀여웠다. 그런데 '조선총잡이'에선 로맨스 라인을 따라갈 때 오히려 남상미에게 많이 의존했다. 여배우로서 당차졌다. 남자 배우가 애정 신을 앞두고 편하게 상의할 수 있게 도와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다. 남상미가 성숙해지면서 뽀뽀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오묘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오빠로서 고마웠다.

- 기억 나는 장면은?

동굴에서 했던 남상미와의 키스 장면이다. 현장 스태프들도 '적당히 하라'고 할 정도로 나만 좋았던 장면이었다. '조선총잡이'를 통해 나의 키스 능력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웃음) 다음 작품에선 더 발전한 애정 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 키스신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다

각도와 눈빛, 호흡을 고민했다. 드라마 키스 신은 영화보다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족 시청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수위를 지키면서 가장 섹시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현장에서 가장 흥분해 있었던 게 나였다. 남상미가 '오빠가 앞에서 하라고 하라며' 귀찮아 했었다.

- 액션 명장면은?

6회 후반부 최혜원(전혜빈)을 구할 때 했던 액션이다. 스스로 '내가 이렇게 액션을 잘 했나' 싶을 정도였다. 특히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한 호흡에 찍어야 했었다. 전혜빈도 그때 나한테 반했다고 말했다.

- 최종회엔 긴 머리에 수염까지 붙이며 파격 변신했다

짧은 장면이었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고 싶었다. 야수 같은 표정이 나와서 스스로도 놀랐다. 사실 수염 붙이는 건 반대했었다. 그런데 감독님은 세월이 흐른 걸 표현하고 싶어 했다. 긴 머리만 먼저 연출해 봤는데 박윤강이 아니라 영화 '왕의 남자' 공길이 같았다. 수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공백기에 면도하지 않았을 때 난 수염을 보며 '나는 남자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자신감을 갖고 수염을 붙였는데 정말 별로였다. 방송할 때까지 조마조마했었다. 시청자는 물론 팬도 충격을 받았다.

- 몇 해 동안 스캔들은커녕 소문조차 없다

'연애하고 싶다'고 스태프들에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한테까지 이미지 관리하냐'라는 반응이다. 그러다가 진심인 걸 알게 되면 모두 걱정하며 '욕구는 어디서 푸냐?'라고 물어본다. 나는 성격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웃음) '조선총잡이' 스태프들이 나와 관련된 야한 별명을 지어줬다. 씁쓸하다. 현장 가면 여배우들도 그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

- 마지막 연애는?

3년 전. 사람들은 내가 쌓아왔는 책임감 걱정이 많다고 한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는데도 작업 걸기 전 고민이 많다.

- 공개 연애를 할 건가

공개 연애를 하면 남자는 괜찮은데 아직까지 여자는 피해보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 고민이다. 그런데 반대로 숨어서 만나면 연인과의 추억이 밤낮 집과 차밖에 없으니까 연애를 하면 공개하는 게 나은 것 같다.

- 팬들이 충격 받겠다

그런 의미에서 난 꼭 판이다. 차라리 꾸준히 연애했거나 소문이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말이다. 우리 소속사는 사내 연애를 권하고 있다.

- 소속사 동료 전혜빈은 어떤가?

형제다. '조선총잡이'에서 처음 만났는데 연기력에 놀랐다. 초반 가장 많이 매력을 느낀 사람이다.

- 연말 KBS 시상식을 기대하겠다

'정도전'이 있어서 나는 객석에 나가 있을 예정이다. (웃음) 즐겨 봐 주신다면 정말 기쁘겠다.

/권혜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노래하는 윤도현'

YB 록과 차별 포크송 담은 솔로 앨범 발표

"대학로에서 공연하던 시절에 사인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땐 사인이 없었을 때라 그냥 '노래하는 윤도현'이라고 적었죠. 집에 돌아와서 멋있는 사인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것만큼 저를 잘 표현해주는 말이 없더군요."

윤도현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예스24 무브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솔로 미니 앨범 '노래하는 윤도현'이라는 이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5년 만에 발표하는 솔로 앨범 '노래하는 윤도현'은 서정적인 포크 사운드에 윤도현의 목소리가 잘 어우러진 곡들로 채워져 있다. 더블 타이틀 곡 '빗소리'와 '우리 사랑했던 시간만큼'은 각각 다른 느낌의 어쿠스틱 사운드가 인상적인 포크송이다. 강렬한 록 비트에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내던 YB의 보컬 윤도현은 이번 앨범에선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윤도현은 "YB라는 밴드를 하지만 제 안엔 다양한 감정과 음악이 있다. 포크송으로 음악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포크 감성이 짙은 곡을 발표하고 싶었고 써둔 곡들도 많아 이렇게 솔로 앨범으로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고등학교 때 헤비메탈 밴드로 시작했는데 이후에 밴드가 없어서 혼자 통기타 치며 노래하다 포크 팀에 들어갔다. 그렇게 포크 음악에 매료됐고 포크 음악으로 된 1집을 냈다"며 "전 늘 밴드를 꿈꿨고 또 밴드를 했다. 포크와 록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포크를 하고싶은 걸 참다가 갑자기 한 게 아니다. YB의 음악이 공연장에서 함께 즐기는 음악이라면 제 솔로 앨범은 요즘 같은 가을에 듣기 좋은 음악"이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타이틀 '빗소리'는 어쿠스틱 사운드가 인상적인 포크록 스타일의 곡으로 '옥상달빛'이 코러스로 참여해 순수하고 맑은 느낌을 노래했다.

윤도현은 "사실 '빗소리'는 GO쇼에 출연해서 즉석에서 5분 만에 만든 노래다. 당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재구성 하고 가사도 새로 썼다"고 말했다. 두 번째 타이틀 '우리 사랑했던 시간만큼'은 대중에게 익숙한 윤도현의 목소리 톤이 잘 드러난 곡으로 어쿠스틱 기타의 아르페지오가 선명해 곡에 슬픈 분위기를 더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는 1995년에 발매된 윤도현의 데뷔 음반 수록곡을 리메이크한 노래다. 윤도현은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온 지 20년이나 됐는데 가을이 되면 음원 사이트에 올라올 정도다"며 "가을이면 사랑받는 이 노래를 지금 제 목소리와 감성으로 다시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도현은 '다음달' 대학로 학전블루 소극장에서 데뷔 이후 첫 단독 소극장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정작은 기자 lanstkle@metroseoul.co.kr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도현이 진행자인 김제동과 새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디컴퍼니 제공

임형주 LA서 단독 콘서트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오르페움극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

LA 공연은 2003년 '한-미 이민 100주년 기념 음악대축제-제1회 코리안 뮤직 페스티벌'과 2010년 '대한민국 광복 65주년 기념 음악회' 이후 세 번째다. 단독 콘서트는 처음이다.

이번 공연에는 임형주가 음악감독으로 있는 코리안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앙상블팀과 이상훈 프로듀서 등이 참여한다. 임형주는 클래식 명곡과 오페라 아리아, 올드팝, 재즈, 가요 등을 아우르는 대표곡과 세텔로 주요곡으로 탄탄한 전개의 바람이 되어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UN 평화메달 수상자이기도 한 임형주는 이번 공연 수익금 중 대부분을 미주 지역의 NGO 단체인 소망소사이어티의 아프리카 우물파기 프로젝트에 기부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1년 전부터 기획된 이번 공연에는 임형주씨의 전속 오케스트라, 음악 프로듀서, 무대감독, 음향감독, 조명감독 등이 총출동한다"며 "3000여 석의 유서 깊은 공연장에서 현지 시민과 교민들에게 다채로운 무대 연출과 수준 높은 사운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순호 기자 sune@

명품 보이스 모세 컴백

새 싱글 '기적' 발표하고 방송·공연 활동

감미로운 발라드 곡 '사랑인 걸'의 가수 모세가 컴백한다.

모세는 16일 정오 새 디지털 싱글 '기적' 음원 공개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송활동과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기적'은 모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최신 K팝 트렌드를 가미해 슬픔을 색다르게 노래한 곡이다. 작곡은 아이유, 박효신, 지아 등 여러 가수의 히트곡을 만든 신형이, 노랫말은 현재 온라인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는 신촌을 못가', '소유·정기고의 썸', '엠씨더맥스의 그대가 분다', '포맨의 못해' 등을 작사한 민연재가 맡았다.

모세의 소속사 KW 관계자는 "5년 만에 컴백해 KBS2 '불후의 명곡' 등의 방송활동으로 성공적으로 복귀한 모세가 선보이는 '기적'은 떠나간 사람을 잊기 위한 한 남자의 애절하고도 슬픈 이야기를 담은 곡이다. 모세의 명곡 '사랑인 걸'에 버금가는 완성도 높은 곡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지민 기자

'K팝스타3' 남영주 '아찔한 데뷔'

첫 싱글 포스터 야릇한 매력 발산

SBS 'K팝스타3' 출신의 남영주가 아찔한 매력의 앨범 포스터와 함께 가수 데뷔를 알렸다.

남영주는 16일 소속사 공식 SNS에 데뷔 싱글 '6시 9분'의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에서 남영주는 'K팝스타' 출연 당시와 몰라보게 날씬해진 몸매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샤워 콘서트'라는 제목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 남영주는 시워커튼 사이로 드러난 각선미와 함께 샤워를 막 한 듯 촉촉한 모습으로 야릇하게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샤워기 모양의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포즈로 파격적인 변신을 선보이며 확연히 달라진 외모와 분위기를 선보이고 있다.

소속사는 "먼저 공개된 재킷 이미지와 같이 최대한 노출을 하지 않고도 남영주의 매력적이고도 고혹적인 섹시미를 최대한 표현하고자 했다. 그 의도가 가장 잘 표현된 이미지를 포스터로 정했다"고 전했다.

/유순호 기자

오늘부터 출근

매주 | 토 | 밤 11시 10분 tvN / 9월 20일 첫방송

박신혜 대만 팬미팅 성료

태국 투어 후 '피노키오' 촬영 시작

배우 박신혜(사진)가 2박 3일 대만 일정을 마쳤다. 현지에서 첫 단독 팬 미팅을 열고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하며 인기를 실감했다.

2010년 대만 드라마 '선풍관가'의 주연으로 대만과 인연을 맺은 박신혜와 입국을 환영하기 위해 13일 도원국제공항에는 수많은 팬과 취재진이 함께 했다.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선 TTV, CTV, CTS, TVBS 등 주요 방송사와 중국시보, 연합보, 중앙시, 명보주간, TVBS 주간 등 주요 언론매체가 모두 참석해 박신혜를 조명했다.

14일 타이베이의 'Att 쇼박스'에서 열린 팬 미팅은 대만 팬의 열기로 가득했다.

1부는 SBS 드라마 '상속자들' OST 스토리 라이브 무대로 시작됐다. '마이 니어'의 작곡가이자 친 오빠 박신원이 등장해 박신혜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2부는 대만 배우 지노(Gino)가 진행했다. 박신혜는 '상속자들'의 자은상으로 돌아가 팬과 직접 교감했다. '상속자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자은상 따라잡기, 객석 Q&A와 망고주스 만들기 등을 팬과 함께 했다.

노래 '사랑하게 되는 날'을 끝으로 2시간 공연은 막을 내렸고 박신혜는 하이터치, 사진 촬영으로 대만 팬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박신혜는 대만에 이어 태국에서 팬 미팅을 앞두고 있다.

투어 후에는 오는 11월 방송 예정인 SBS 새 수목드라마 '피노키오'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피노키오'는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박혜련 작가와 조수원 PD의 재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신혜는 솔직하고 당당한 사회부 기자 최인하로 분해 배우 이종석과 호흡을 맞춘다. /전효순 기자 jeonh@

"당당한 출연자 찾기 어려워"

'님과 함께' 안문숙·김범수 '썸타는' 커플로 투입

JTBC 예능프로그램 '님과 함께'가 안문숙·김범수 커플을 투입하며 조금 더 리얼한 가상 재혼 프로그램으로 탈바꿈한다.

16일 '님과 함께' 제작진은 안문숙·김범수 커플의 투입을 알리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사유리 커플과 안문숙-김범수 커플, 방현영 PD가 참석했다.

'님과 함께'는 결혼 경험이 있는 중견 스타들이 가상 재혼을 통해 재결합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1월 처음 전파를 탔다. '재혼'이라는 아이템이 시청자들에게 다소 거북하게 다가갈 수도 있었지만 첫 회 방송 후 꾸준히 시청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지난 8월 비공중파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에 올랐다.

방현영 PD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시청자들을 끌 수 있는 힘으로 '재혼'이라는 소재를 잡았나. 방PD는 "기존의 가상 연애 프로가 많지만 등장하는 커플은 예쁘게 포장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며 "그래도 재혼이라는 소재는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생의 풍파를 겪을 대로 겪은 연륜 있는 분들이 각자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리얼하게 이야기를 풀다 보니 그런 부분이 시청자들에게 와 닿지 않았을까"라며 "출연자 선택에 있어서도 콘텐츠가 많이 있느냐가 중요했다"고 말했다. 안문숙·김범수 커플은 리얼 예능프로그램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커플이라며 캐스팅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재혼시장에서 매칭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안다. 역시 당당하게 출연하고자 하는 분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며 "안문숙·김범수 커플은 소개팅 아이템으로 연출한 기존 방영분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에 파격적으로 모시게 됐다"고 전했다.

'님과 함께'는 수요일 오후 11시 지상렬·박준금, 이상민·사유리, 김범수-안문숙 커플과 달라진 모습으로 시청자를 찾을 예정이다.

님과 함께 에 출연하는 김범수·안문숙 /JTBC 제공

/김학철기자 kimc1104@metroseoul.co.kr

미국HBO '뉴스룸' 출연진(왼쪽)과 JTBC에서 진행한 'JTBC 뉴스' 출연진.

손석희의 '뉴스룸' 미드처럼?

새 보도 프로그램, 인기 드라마 같은 제목 눈길

JTBC가 가을 개편을 맞아 'JTBC 뉴스9'을 폐지하고 'JTBC 뉴스룸'을 신설한다. 손석희 앵커가 내레이션한 티저 광고도 공개했다.

22일 첫 방송되는 "JTBC 뉴스룸"은 오후 8시부터 9시 40분까지 무려 100분간 진행되는 "대형 뉴스"다. 진행은 손석희·김소현 앵커가 맡는다.

티저 영상 속 손석희 앵커는 "JTBC 뉴스9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겠나. 한 걸음 먼저 시작하기 위해 뉴스는 한 시간이라는 생각도 버리겠다"라며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저녁 8시부터 100분 동안 JTBC 뉴스룸이 문을 연다"고 말했다.

손석희 앵커는 JTBC 보도담당 사장으로 '뉴스 9' 앵커석에 앉았다. 당시 JTBC 측은 "'뉴스 9'은 관행적으로 해온 리포트의 백화점식 나열을 자제하고 당사자나 전문가와의 인터뷰, 심층취재 등을 통해 '한 걸음 더 들어간 뉴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과거 손 사장이 진행했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10여 년간 함께 일했던 작가들도 손 앵커의 메인뉴스 등에 합류했다"고 전했다.

JTBC 뉴스는 미국 HBO에서 방송하는 드라마 '뉴스룸'을 연상시키는 출연진들의 사진과 진행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미드 '뉴스룸' 출연진이 함께 찍은 프로그램 사진과 JTBC가 공개했던 사진은 놀랍도록 유사해 뉴스 프로그램을 '뉴스룸'에서 모티브 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다.

시청자들의 의구심에 답이라도 하듯 이번 개편을 통해 JTBC는 이름마저 같은 '뉴스룸'을 신설한 것이다. 드라마의 인기처럼 손석희의 100분짜리 뉴스가 성공할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학철기자

디바 에일리의 변신은 무죄?

미니 3집 '매거진'서 깜찍한 삐에로 변신

폭발적인 가창력과 화려한 무대 매너를 자랑하는 가수 에일리가 컴백한다.

에일리의 소속사 YMC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5일 에일리가 세 번째 미니 앨범 '매거진'의 음원을 발표한다"고 밝히며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번 앨범에서 에일리는 '보여줄게', 'U&I' 등의 히트곡에서 보여줬던 강인한 여성의 느낌에서 탈피해 양갈래 머리의 깜찍한 삐에로로 변신했다. 소속사 측은 "이번 앨범은 한층 발전되고 성숙해진 에일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앨범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모습으로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에일리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일리는 이번 앨범 발매에 맞춰 처음으로 컴백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250여 명의 팬을 초대할 예정이다. 쇼케이스 참석 신청은 25일 음원 공개일에 음원 사이트 벅스와 네이버 뮤직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음반 발매는 29일이다. /유지은 기자 [illegible]

판타지 버전의 '파리대왕'과 상통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10대 소년 성장담··· 아쉬움 남는 결말

■메이즈 러너

베스트셀러 소설을 영화화한 판타지 블록버스터 시리즈는 21세기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다. '해리 포터' 시리즈의 성공을 발판 삼아 '트와일라잇'과 '헝거 게임' 시리즈 등이 제작되면서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10대 주인공들의 성장담을 판타지·로맨스·어드벤처 등 다양한 틀로 풀어냈다는 점이 전 세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메이즈 러너'는 또 하나의 판타지 블록버스터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다. 원작은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작가 제임스 대시너의 동명 소설로 3부작 중 첫 번째 권에 해당한다. 영화는 할리우드 신예 웨스 볼 감독의 연출 아래 딜런 오브라이언, 카야 스코델라리오, 토마스 생스터, 윌 폴터, 그리고 한국계 배우 이기홍 등 젊은 피의 활약으로 완성됐다.

'메이즈 러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궁금증을 자극하는 영화 속 세계관이다. 영화의 주요 무대는 탈출구를 알 수 없는 미로에 둘러싸인 가상의 공간 '글레이드'다. 이곳에는 자신의 이름을 제외하고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소년들이 스스로를 '글레이더'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다. 주인공 토마스(딜런 오브라이언) 또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기억을 모두 잃은 채 글레이드에 도착한다. 다만 토마스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미로 밖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크다는 것이다.

영화는 스스로 만든 규율을 지키며 평화롭게 살고 있던 아이들과 이를 지키지 않는 토마스 사이의 갈등, 그리고 토마스가 미로 밖 세상의 진실을 파헤쳐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파리대왕'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채 갈등을 겪는 아이들의 모습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을 지닌 10대들의 은유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신만의 세계를 벗어나 미로 밖 세상으로 모험을 떠나는 과정까지 '메이즈 러너'는 그럴싸한 성장영화로 다가온다.

그러나 영화는 아이들이 미로 밖을 나서면서부터 그 힘을 잃는다. 관객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미로의 진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속편을 위한 여운이라고는 하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완결되지 않은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가깝게는 '헝거 게임' 시리즈부터 멀게는 '배틀 로얄'까지 기존 영화의 흔적들이 느껴지는 것도 영화의 아쉬운 부분 중 하나다. 12세 이상 관람가. 18일 개봉.

'족구왕' 3만 돌파 '독립영화의 저력'

열악한 상영 환경에도 입소문 '흥행'

지난달 21일 개봉한 영화 '족구왕'(감독 우문기)이 독립영화 흥행 바의 고지로 여겨지는 3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족구왕'은 개봉 25일째인 지난 14일 누적 관객수 3만921명을 기록했다. 스크린 수 30개의 열악한 상영 환경 속에서도 입소문을 통해 관객들을 꾸준히 모아온 결과다.

'족구왕'은 비슷한 시기 개봉한 '야간비행' '자유의 언덕' '마녀' 등 독립영화 화제작들과의 흥행 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여 주목된다. 선전에 힘입어 '족구왕'은 올해 개봉한 한국 다양성영화 박스오피스에서 10위를 지키고 있다.

'족구왕'은 토익 점수 하나 없이 제대한 학점 2.1의 대책 없는 복학생 만섭이 사랑과 족구를 쟁취한다는 내용의 영화다. 신인 우문기 감독의 첫 장편영화로 안재홍, 황승언, 정우식, 강봉성, 황미영 등이 출연했다. /장병호기자

초자연 공포 '콰이어트 원' 18일 개봉

英 공포영화 명가 해머 신작

초자연 공포영화 신드롬을 이어갈 '콰이어트 원'이 오는 18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콰이어트 원'은 1972년 초자연적인 현상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벌어졌던 실제 실험 실화를 소재로 제작된 영화다. 대학 교수 조셉이 영적인 존재로부터 고통 받는 소녀를 실험하던 중 기이한 사건들을 겪으며 죽음의 공포와 마주하게 된다는 내용을 그렸다.

'콰이어트 원'은 영국의 공포영화 대표 제작사인 해머 필름 프로덕션의 신작이다. 해머 필름 프로덕션은 1950년대 '프랑켄슈타인의 저주' '드라큘라' 등의 고전 공포영화를 제작했으며 최근에는 '렛 미 인' '우먼 인 블랙' 등을 만들었다.

영화 '더 시그널'과 드라마 '베이츠 모텔'에서 활약한 올리비아 쿡이 주연을 맡아 차세대 호러퀸에도 도전했다. '헝거게임' 시리즈로 잘 알려진 영국 배우 샘 클라플린도 호흡을 맞췄다.

지난해 '컨저링'을 시작으로 '인시디어스: 두 번째 집'과 올해 '오큘러스'까지 초자연적인 소재의 공포영화가 최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콰이어트 원'은 익숙한 집과 방안의 풍경이 공포의 현장으로 변하는 섬뜩하고 기이한 현상들을 통해 초자연 공포영화의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호기자 solanin@

서울 무대로 6편의 로맨스

'서울연애' 30일 개봉

2013년 제39회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 '서울연애'가 다음달 30일 개봉을 확정했다.

'서울연애'는 독립영화 진영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감독과 배우들이 참여한 6편의 단편을 모은 옴니버스 로맨스 영화다. 2012년부터 기획에 들어가 2013년 1년 동안 촬영과 편집을 거쳐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으로 첫 공개됐다.

이번 작품에는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젊은 감독들이 대거 참여했다. '잉투기' 엄태화 감독, '숨바꼭질' 허정 감독, '족구왕' 우문기 감독, '경복' 최시형 감독, '거인' 김태용 감독 등 장편영화로 관객들과 만난 감독들은 물론 이우정, 정재훈, 조현철, 정혜기 감독 등 독립영화계의 주목 받는 감독들이 영화에 함께 했다. /장병호기자

캣우먼

칼럼니스트

긴장과 여유 밸런스 맞추기 어려워요 느긋한 일 처리 실수만 없다면 괜찮아

Q Hey 캣우먼! 전 천성적으로 좀 느리고 여유로운 상태를 좋아합니다. 일할 때나 남들이 닦달해할 때도 종종 생기지만 허둥지둥 시간에 쫓기다 보면 저도 너무 당황하게 됩니다. 과정이 그렇다 보니 결과물도 안 좋아서 뭔가 끝마친 뒤에도 찜찜하거나 완전히 지쳐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겠구나 타협하고 정신줄을 붙들어 작은 일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끝이 나 있겠지 라는 맘으로 하루를 보내면 직장 일은 언제나 스케줄에 따라가기 바쁘네요. 어떻게 하면 긴장과 여유의 밸런스를 잘 맞추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북이

A Hey 거북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위기감과 이 위기감으로 인한 수치심은 괴롭긴 합니다. 그런데 전 당신과 반대로 천성적으로 성질이 급하고 항상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 하는 조급증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너무 싫습니다. 내일 일을 오늘 미리 하고 모레 일을 내일 미리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쫓기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보기엔 '최적의 속도'로 사람이 일하고 움직인다는 것은 마치 '일과 가사를 균형있게 양립'한다는 말만큼이나 거의 존재 않는 신기루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일을 해도 허둥지둥하든, 마감이 닥쳐서 허둥지둥하든 '일'이라는 건 항상 어느 단계에선 쫓기는 기분이 듭니다.

'일을 빨리 한다'가 일을 잘하고, '일을 느리게 한다'가 반드시 일을 못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일에 따라 필요한 성향과 능력이 달라지니까요. 나의 느긋함으로 업무에서 구체적인 실수가 세 번 이상 있었다면 상사와 개선방향을 협의해야 합니다.

또 나의 성격으로 주변사람을 피곤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지 않는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타고난 그 성격을 만회할 수 있는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이 있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캣우먼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2			8	7		
	8	7				3		
			1	7	6			
9						5		7
	4			9			3	
6		1						2
			9	5	7			
		5				9	6	
		9	8			1		5

	3	1	7					2
	8			9		4	3	
2			5					
		3		5		6		
	7		2		3		5	
		9		4		7		
					9			1
	6	7		6			4	
8					5	3	6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엔사 스도쿠 프리미어》 (제이 고든 프랭크 등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이직 시기와 부부사이 어떨지 궁금 슬기로운 대처를… 직장은 쉽지 않아

Q rumac92 남자 73년 8월 25일 음력 새벽6시 / 여자 74년 7월 19일 음력

안녕하세요. 지난 번 이직과 결혼에 관련해서 글을 드렸는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번 답변에 생년월일이 없어서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하셔서 다시 생년월일을 올려봅니다. 이직을 해야 한다면 언제쯤이 좋을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앞으로의 비전이 좋지 않은 상태라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이프하고의 관계는 괜찮은가요? 신혼 초부터 워낙 많이 싸우고 많이 풀어지기는 했지만 돈이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A 복잡한 인연이 남녀 간에 인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인 관계에서 헤어지는 경우는 그 인연의 깊이가 깊지 않고 헤어지는 시점에서 인연(緣)이 다 했기 때문이며 부부사이에도 좋은 인연이냐는 서로가 살아가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체는 본인이고 환경에 따라 잘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성정이나 인정 능력을 알고 그것에 걸맞게 대처해가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활발하여 거짓이 없으며 서정적인 마음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서정적인 마음으로 현실을 바로보지 못하여 뒤늦게 후회하는데 장점이자 단점이 되겠지요. 참 툴어하고 불편하여 많다보면 하여질 상황에 전개되고 그다음 수습이 어려워 올이가려져도 엉클러진 줄이 되는 것입니다. 40이 넘어 어느 회사에서 나를 어서 오십시오 하는 데가 있을까요. 돈 문제로 다투는 것도 시간이 해결해 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분들의 종교를 떠나서 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정해진 운명을 갖고 있는데 부처님은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의 원인을 불러키며 이에 따라 하나의 정해진 운명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방법과 사례를 밝힌 요범사훈(了凡四訓)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명대(明代)의 관료인 원요범(袁了凡)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아들을 훈계하기 위해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네 가지 가르침에 대해 저술한 것입니다. 중국인들 사이에는 수백 년 동안 자녀교육서 이지 개운서(開運書)로서 널리 알려진 책입니다. 정신수양과 공덕의정막에 있어 불편함을 넘어서게 되니 읽어보시고 일을 만들기 전에 상담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묻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17일 (음 8월 24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남을 도울 수 있어 즐겁다. 60년생 세대차에 의지를 확실히 보여 주라. 72년생 감정노동자는 스트레스 받을 일 생긴다. 84년생 겨울이 추워도 봄은 오는 법~

소: 49년생 손해 보더라도 정도 걸어라. 61년생 부담감 덜어내야 뜻을 이룬다. 73년생 선배가 안내한 길대로 가면 매사 순조~ 85년생 궁합이 잘 맞는 동반자 나타난다.

호랑이: 50년생 통하는 사람과 식사가 즐겁다. 62년생 남을 도울 수 있어 즐겁구나. 74년생 최선 다하면 없던 길도 생긴다. 86년생 간척 드린 뒤에 성사되어 이호~

토끼: 51년생 상대방 입장도 생각할 것. 63년생 뜻밖의 웃을 일이 생긴다. 75년생 밀린 숙제를 한 후에 다음을 생각할 것. 87년생 발로 뛰어 해내라도 얻는다.

용: 52년생 어려운 상황서 개선된다. 64년생 최안일은 공감대기 중요~ 76년생 과격적 행보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88년생 눈치 보지 말고 계산을 마음껏 발휘하라.

뱀: 53년생 공적인 일엔 냉정할 것. 65년생 목표만 보고 돌격해야 성과 있다. 77년생 능력 밖의 일에 신경 끊어라. 89년생 어둠속 한줄기 빛 같은 존재가 된다.

말: 42년생 자녀가 근심거리 만긴다. 54년생 경사에도 웃지 못하는 처지로구나. 66년생 공들인 일은 어떻게 성사된다. 78년생 방해꾼이 많으나 비장한 각오로 임하라.

양: 43년생 귀인 천대할 일 생길수도. 55년생 마음을 닫은 배우자가 닥히기만 하니. 67년생 조직서 너무 앞서가면 심신만 피곤~ 79년생 감들어 있으면 기뻐할 수 없다.

원숭이: 44년생 동남쪽에 행운바람 분다. 56년생 편고 편안한 길만 찾지 말라. 68년생 말이 많으면 상대가 공격할 빌미를 준다. 80년생 예법에 어긋나는 행동 않도록 조심

닭: 45년생 급할수록 차분하게 대처할 것. 57년생 폭풍의 언덕에 홀로 선 느낌이다. 69년생 잠재력이 없는 곳에 욕인하시 말라. 81년생 직장인은 조직의 자랑이 된다.

개: 46년생 생각이 많으면 진전 못한다. 58년생 목표에 지질이 생기니 대비하라. 70년생 자신 할 일을 하는 게 체모 되는 것이다. 82년생 운세가 좋았으니 움직여라.

돼지: 47년생 계약일은 미루어라. 59년생 샛길로 빠지면 에너지만 낭비한다. 71년생 자신이 속한 집단의 말에 충실할 것. 83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평상심 되찾는다.

한국 축구 3남매 동시 승전보 "한 번 더~"

아시안게임 남녀·AFC U-16 17일 동반 출전

형·누나·동생이 동시 승리를 노린다.

인천 아시안게임 남녀 축구 대표팀과 남자 16세 이하(U-16) 축구 대표팀이 17일 동반 출전한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은 오후 8시 경기도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14일 1차전에서 한국은 말레이시아를 3-0으로 꺾었고, 사우디는 라오스에 3-0으로 승리를 거뒀다. 한국과 사우디전은 사실상의 조 1위 결정전이다. 조 1위를 확정하면 B조 2위와 16강에서 맞붙는다. 우즈베키스탄, 홍콩,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이 속한 B조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1위를 차지할 것이 유력하다.

한국은 1차전에서 조직력이나 세트피스의 정교함 등에서 미흡함을 보였지만 김신욱(울산)과 김승대(포항)가 골 맛을 봤다는 점이 향후 전망을 밝게 했다. 사우디는 23세 이상의 와일드카드를 한 명도 기용하지 않았고 1차전 라오스와의 경기 내용도 좋지 않아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우리보다 한 수 아래로 여겨진다.

여자 대표팀은 같은 시간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에서 인도와 경기한다. 여자 대표팀은 14일 1차전에서 A조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대인 태국에 5-0 대승을 거뒀다.

박희영(스포츠토토), 유영아·정설빈·이세은(이상 현대제철) 등 간판 공격수들이 모두 골을 넣었고, 정설빈(현대제철)은 1골, 2도움을 기록하는 등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 가능성을 높였다. 인도는 1차전에서 몰디브를 15-0으로 꺾었다.

U-16 대표팀은 17일 오후 6시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시리아를 상대로 2014 아시아축구연맹(AFC) U-16 챔피언십 준결승을 치른다. 12년 만에 아시아 정상을 노리는 대표팀은 이번 대회 최고 스타인 이승우를 앞세워 결승행 티켓을 거머쥔다는 계획이다.

이승우는 경고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한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제외하고 2차전(1-0승), 3차전(2-0승)에 이어 8강전(2-0승)에서 3경기 연속 결승골을 터트렸다. 일본과의 8강에서 터트린 두 번째 골은 이번 대회에서 이승우의 존재를 확고히 했다. 이승우는 중앙선 부근에서 볼을 잡아 단독 드리블한 뒤 엄청난 스피드와 발재간으로 수비수 3명과 골키퍼까지 제치고 골을 넣었다.

한국이 AFC U-16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것은 2002년 대회가 마지막이었다. 이후 한국은 2008년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지만 대부분 8강 고비를 넘지 못했다.

준결승 상대인 시리아는 조별리그 D조 2위로 8강에 올라 우즈베키스탄을 5-2로 대파하고 4강에 합류했다.

/배성수 기자 sunsu@metroseoul.co.kr

어깨부상 류현진 정규시즌 끝!

염증으로 남은 경기 등판 힘들 듯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사진)이 남은 정규시즌 경기에 등판할 수 있을까.

16일(한국시간) 다저스 구단은 류현진이 견갑골(어깨뼈) 단순 염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지만 남은 정규시즌 등판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저스 측은 "류현진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하고 코티손(항염증 치료제) 주사 치료를 했다"며 "지난 5월 부상자 명단에 올랐을 때와 같은 부위고 상태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현진은 4일 동안 공을 던지지 않고 휴식을 취한 후 19일부터 22일까지 예정돼 있는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 4연전 중 팀에 복귀해 캐치볼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현진은 4월 28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경기에서도 어깨에 불편함을 느껴 정밀검진을 받았고 견갑골 염증 진단을 받았다. 부상자 명단에 오른 류현진은 24일 만인 5월 22일 뉴욕 메츠전에서 마운드에 복귀했다.

이미 한 차례 같은 진단을 받았던 류현진의 회복 속도라면 오는 29일 정규시즌 일정을 끝내는 다저스이기에 남은 경기 등판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일찍 확정한다면 류현진의 상태에 따라 복귀 시점이 달라 질 수 있다. 16일 현재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3게임 앞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13경기가 남아 있어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NBC 등 현지 언론은 류현진의 정규시즌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포스트시즌에야 돌아올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MLB닷컴은 서부지구 1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 23일부터 있을 샌프란시스코전에 류현진이 선발 등판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3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1이닝을 소화한 후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조기강판됐다.

/김학철 기자 kimc0604@

'금빛 도전' 손연재 마지막 모의고사

'미리 보는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출전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연세대 사진)가 22~28일(현지시간) 터키 이즈미르에서 열리는 국제체조연맹(FIG)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도전에 앞선 '마지막 모의고사'다.

올 시즌 목표를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맞춘 손연재는 이번 대회에서 후프 볼 곤봉 리본 등 전 종목에서 아시안게임 메달 안정권인 '17점' 후반대 점수를 얻기 위해 최선의 연기를 펼칠 전망이다.

올해 4월 리스본 월드컵에서 시니어 데뷔 이후 첫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한 손연재는 지난달 던디 월드컵에서는 동메달을 따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최강 예나 쿠드랴체바를 비롯해 마르가리타 마문(이상 러시아), 멜리티나 스타니우타(벨라루스), 안나 리자트디노바(우크라이나) 등 최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한다.

특히 손연재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놓고 다툴 아시아 지역 경쟁자들도 대부분 참가해 '미리 보는 아시안게임'으로 큰 관심을 끈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중국의 덩썬웨도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덩썬웨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손연재(5위)를 제치고 4위에 올랐다. 덩썬웨는 지난해 아시아선수권에서도 볼·리본에서 금메달을 따내 개인종합·후프·곤봉 금메달을 딴 손연재의 독주를 막은 바 있다.

지난달 던디 월드컵에서는 손연재가 3위, 덩썬웨가 7위를 차지하면서 전세가 다시 역전됐다. 덩썬웨가 던디월드컵에서 발목 부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경계해야 할 선수임에 틀림 없다.

또 다른 경쟁자인 우즈베키스탄의 엘리타베타 나자렌코바(세계 랭킹 11위)와 자밀라 라크마토바(16위), 일본의 미나가와 가호(18위)와 사쿠라 하야카와(22위)도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

/김학철 기자

LOTTE
evian